



글로벌 도시로 도약 위한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지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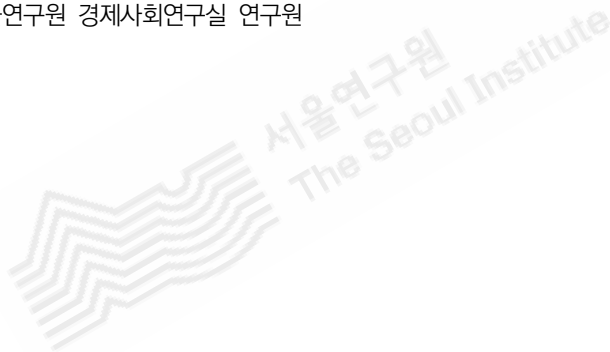
박희석 김수진

연구책임

박희석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김수진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체계·포용적 경제정책 수립 정례화로 경제 펀더멘털 진단하고 성장기반 마련 필요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세계 주요도시의 경제정책 모니터링 필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5위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급변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제정책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서울시 경제와 산업정책에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 9대 도시 선정해 도시별 거시경제지표 분석, 경제성장 추이 파악

해외도시 중 메가시티에 해당하거나 금융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의 산업에 특화된 도시 9개(뉴욕,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싱가포르, 서울)를 선정하였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 전망을 위하여 도시별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경제성장 추이를 파악하였다. 과거 20년간 세계 9대 도시 평균 성장률은 3.98%, 상하이 11.1%, 싱가포르 5.6%, 샌프란시스코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2.8%로 9개 도시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도쿄는 0.6%로 최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상하이에는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 평균 성장률은 4.6%에서 -2.6%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상하이 1.4%, 도쿄 0.2%, 서울 -0.1%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고, 서울과 도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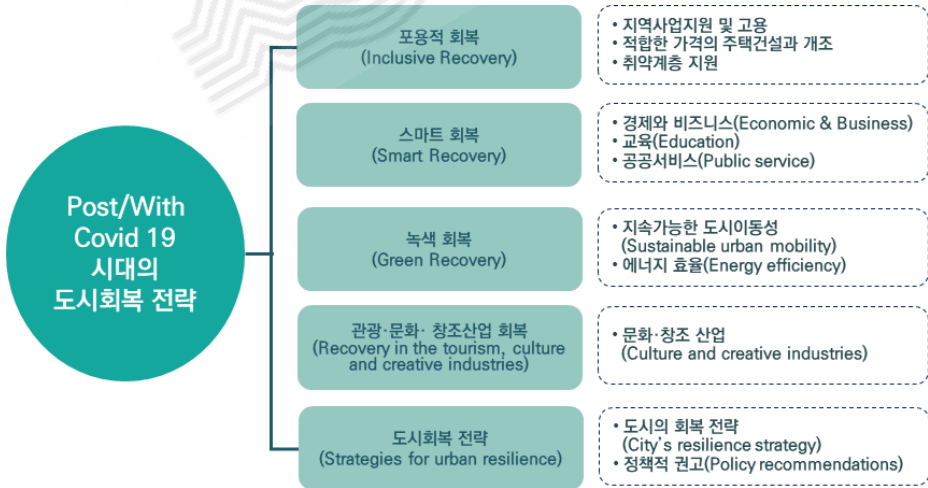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해외도시 경제성장을 비교

코로나19, 세계도시경제에 큰 타격 ... 5대 도시회복전략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에 세계도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적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붕괴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세계 대도시들은 개별 위기관리 및 단기 전략을 마련한 후, 5가지 장기 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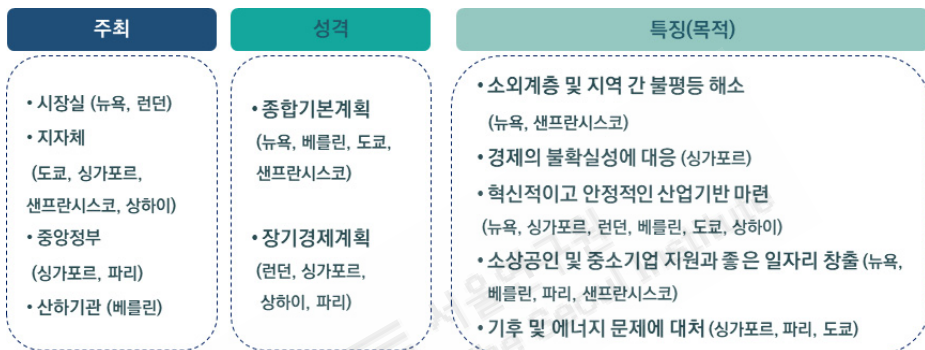
대부분의 도시가 포용적 전략, 도시회복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회복력 개선을 중점적인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주요 대도시의 5대 회복전략

장기도시정책, 도시별로 다른 집행체계 ... 종합기본계획·장기경제계획 구분

주요 도시는 정기적으로 경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크게 종합기본계획과 장기경제계획으로 구분된다. 경제 계획의 주요 목적은 불평등 해소, 경제성장 지속, 기후 문제 대처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도시의 주요 산업정책은 디지털과 환경 분야의 산업에 집중되어 관련 세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은 디지털, 환경 관련 산업, 미국은 문화, 관광, 의료 관련 산업, 아시아는 디지털,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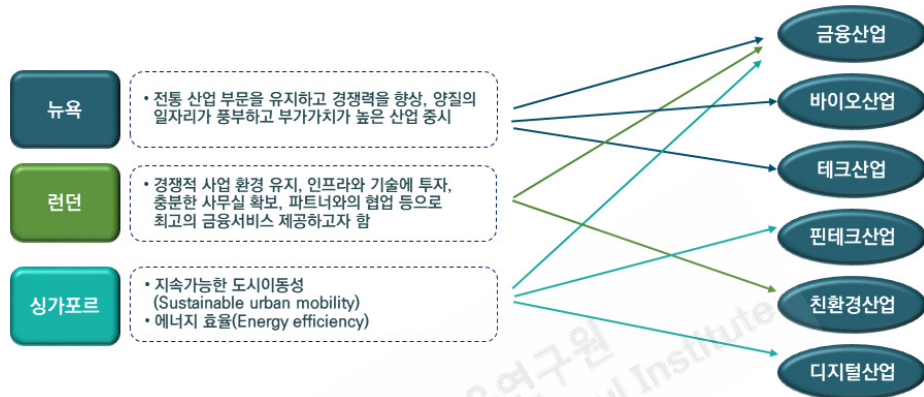
[그림 3] 해외 주요도시 장기경제계획 요약

뉴욕·런던·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 시행

3대 핵심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과 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적인 정책과 산업으로 금융산업·핀테크, 바이오산업, 테크산업, 친환경산업, 디지털산업이 대표적이다. 금융산업은 관련된 기관, 기업체, 인력 등이 집적할수록 성장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가 탁월하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도시는 세계적인 금융업계 본사와 지사, 연구소, 대학 등 금융 인프라가 집적된 환경으로 도시 그 자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의 금융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으로,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경쟁형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테크산업이 주

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 정책과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고급 인재 양성 및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스타트업 육성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그린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경제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결합하여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산업 육성, 그린 펀드를 조성하며,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3대 핵심도시 주요 산업의 정책 방향성

중장기 경제·산업정책 수립 정례화로 서울 경쟁력 강화·성장동력 견인 필요

정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서울의 경제 펀더멘탈을 진단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해외 대도시 핵심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사례의 조사가 필요하다.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등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는 테크산업과 응용산업 간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산업, 친환경 산업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스타트업 집적지와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양질이 일자리를 창출, 클러스터 테크허브 형성으로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민-산-학-시 간 유기적

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급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녹색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NY 바이오테펀스 상업 기금, 런던 투자펀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 연구배경과 목적	2
2_ 연구대상, 방법 및 내용적 체계	3
02 해외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 지표 분석과 진단	8
1_ 주요 도시 거시경제 지표 분석 개요	8
2_ 주요 도시별 경제 흐름 변화 진단	12
3_ 소결	54
03 해외 주요 도시의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 조사	60
1_ 조사 개요와 내용	60
2_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전략	61
3_ 주요 도시별 장기경제정책	68
4_ 소결	88
04 해외 3대 도시 주요 산업정책 분석	92
1_ 뉴욕	92
2_ 런던	103
3_ 싱가포르	109
4_ 소결	118
05 결론과 시사점	122
1_ 결론	122
2_ 시사점	124

부록	125
참고문헌	131
Abstract	136
Contents	138



표 목차

[표 2-1] 거시경제 지표 출처	11
[표 2-2] 뉴욕 GDP 변화(%)	13
[표 2-3] 뉴욕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15
[표 2-4] 뉴욕 실업률 변화(%)	17
[표 2-5] 샌프란시스코 GDP 증감률 변화(%)	18
[표 2-6] 샌프란시스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20
[표 2-7] 샌프란시스코 실업률 변화(%)	21
[표 2-8]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24
[표 2-9] 도쿄 실업률 변화(%)	25
[표 2-10] 도쿄 환율 변화(USD/JPY)	27
[표 2-11] 싱가포르 GDP 증감률 변화(%)	29
[표 2-12] 싱가포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30
[표 2-13] 싱가포르 실업률 변화(%)	32
[표 2-14] 싱가포르 환율 변화(USD/SGD), 2000~2022년 2분기)	33
[표 2-15] 상하이 GDP 증감률 변화(%)	35
[표 2-16] 상하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36
[표 2-17] 상하이 실업률 변화(%)	37
[표 2-18] 중국 달러당 위안 환율 변화(USD/CNY, 2001~2021년)	38
[표 2-19] 베를린 GDP 증감률 변화(%)	40
[표 2-20] 베를린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41
[표 2-21] 베를린 실업률 변화(%)	43
[표 2-22] 독일의 환율 변화(USD/EUR)	44
[표 2-23] 런던 GDP 증감률 변화(%)	45

x

[표 2-24] 런던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47
[표 2-25] 런던의 실업률 변화(%)	48
[표 2-26] 영국의 환율 변화(USD/GBP)	50
[표 2-27] 파리 GDP 증감률 변화(%)	51
[표 2-28] 파리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52
[표 2-29] 파리의 실업률 변화(%)	54
[표 3-1] 해외 주요도시의 장기경제정책 조사 내용	61
[표 3-2] 해외 주요도시의 코로나19 회복 전략 요약	63
[표 3-3] OneNYC 비전 및 내용	69
[표 3-4] OneNYC 2050 '포용적인 경제' 목표 관련 이니셔티브 및 세부과제	72
[표 3-5] 샌프란시스코 장기경제계획의 범위	83
[표 3-6] 해외 주요 도시의 장기경제정책 요약	89
[표 4-1] 런던의 세계 경쟁력 순위	103
[표 4-2] 스마트네이션 3가지 구성요소와 세부 항목	111
[표 4-3] 금융서비스산업 세부 항목	116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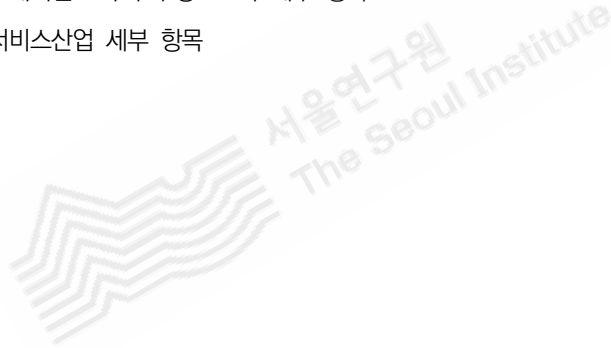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5
[그림 2-1] 해외 주요 도시 선정 체계	9
[그림 2-2] 주요 거시경제 지표	10
[그림 2-3] 뉴욕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12
[그림 2-4] 뉴욕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14
[그림 2-5] 뉴욕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16
[그림 2-6] 샌프란시스코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2~2020년)	18
[그림 2-7] 샌프란시스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2년 1분기)	19
[그림 2-8] 샌프란시스코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21
[그림 2-9] 도쿄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11~2019년)	22
[그림 2-10]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23
[그림 2-11] 도쿄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 1분기)	24
[그림 2-12] 일본 환율 변화 추이(2000~2022.2분기)	26
[그림 2-13] 싱가포르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28
[그림 2-14] 싱가포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0~2022년)	30
[그림 2-15] 싱가포르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31
[그림 2-16] 싱가포르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33
[그림 2-17] 상하이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34
[그림 2-18] 상하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35
[그림 2-19] 상하이 등기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1)	37
[그림 2-20] 상하이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38
[그림 2-21] 베를린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39
[그림 2-22] 베를린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2년 1분기)	41

[그림 2-23] 베를린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1)	42
[그림 2-24] 독일의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44
[그림 2-25] 런던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45
[그림 2-26] 런던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2년 1분기)	46
[그림 2-27] 런던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48
[그림 2-28] 영국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49
[그림 2-29] 일드 프랑스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50
[그림 2-30] 일드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52
[그림 2-31] 일드 프랑스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1)	53
[그림 2-32] 주요 해외도시 GDP 비교	55
[그림 2-33] 주요 해외도시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55
[그림 2-34] 주요 해외도시 실업률 비교	56
[그림 2-35] 주요 해외도시 환율 비교	57
[그림 3-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주요 대도시의 5대 회복전략	62
[그림 3-2] 뉴욕시의 도시종합기본계획	69
[그림 3-3] 도쿄도의 기본계획	73
[그림 3-4] 해외 주요도시 장기경제계획 요약	88
[그림 4-1] 뉴욕시의 생명과학산업 규모(2021년 3분기 기준)	95
[그림 4-2] 뉴욕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96
[그림 4-3] 뉴욕시의 바이오 관련 공간 조성 사업 사례	97
[그림 4-4] 친환경 산업 사례	106
[그림 4-5] 런던 기술주간 포스터	109
[그림 4-6] 2022년 싱가포르 금융기관 수	112
[그림 4-7] 금융서비스산업 변화 지도	113
[그림 4-8] 2022년 싱가포르 핀테크 맵	118
[그림 4-9] 3대 핵심도시 주요 산업의 정책 방향성	119

01

연구 개요



1_ 연구배경과 목적

2_ 연구대상, 방법 및 내용적 체계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5위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급변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 필요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서울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며 글로벌 도시로서 새로운 성장전략 방향을 모색할 시점
-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제정책 현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 경제정책에 시사점을 반영함
 -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 상응한 거시경제정책 수립에는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계 주요 대도시의 거시경제지표 동향 분석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모니터링 연구를 요청
 - 이 과제는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SIBAC)'에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서울시 시책에 활용 예정

2_연구대상, 방법 및 내용적 체계

1) 연구 대상 및 내용

- 도시별 경제 현안을 파악하고 장기경제정책과 주력 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해외도시 8개를 선정하여 정책사례 분석
 - 해외도시 사례 중 메가시티에 해당하거나 금융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의 산업에 특화된 도시 8개 선정
 - 해외 조사 대상 도시로 뉴욕,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싱가포르 선정
- 경제 규모와 성장률 전망을 위하여 도시별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경제성장 추이 파악
 - 경제구조, 노동력, 생산활동 측면에서 각 세부 분석 지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분석 시점은 2000년부터 2022년 2분기¹⁾로 정하고,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을 전후로 경제 변화 추이 분석

구분	분석 지표
경제구조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환율
노동력	실업률

- 해당 도시의 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시의 경제·산업정책 전략의 변화와 특징을 연구
 - 일자리 정책, 산업구조, 소상공인 지원책, 창업, 경제 성장률 등을 조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 분석

2) 연구방법

- 거시경제 관련 지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해외 주요 도시의 경제성장

¹⁾ 도시마다 거시경제 지표의 자료 구축 여건이 달라 분석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세부 분석내용 부문을 참고

추이를 살펴보고 서울의 도시 성장 가능성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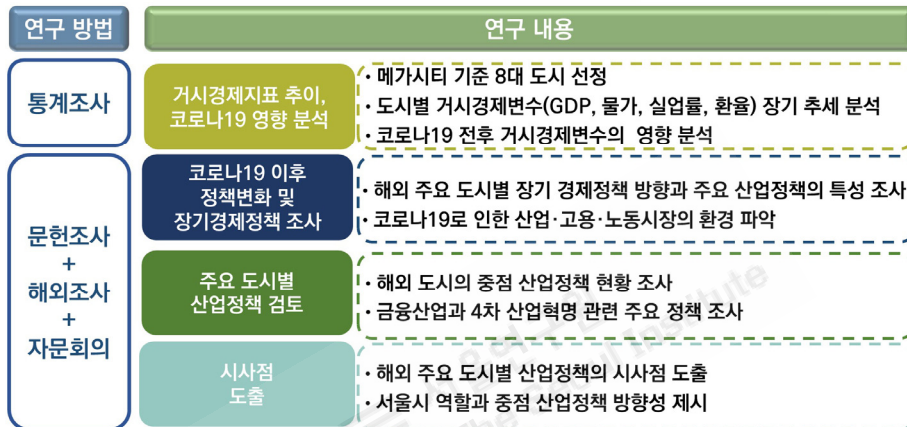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경제 이슈와 현안을 되짚어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해외도시 전문가를 활용하여 글로벌 도시의 경제 현안과 주요 중점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 문헌 연구로 해외도시의 경제정책 사례 정리와 정책의 전략적 특성을 분석하여 서울시 산업정책 추진 방향성과 장기 경제비전 도출

3) 내용적 체계

-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시경제지표 추이와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황과 변화 진단’, ‘주요 산업 육성 전략’, ‘시사점’ 부분으로 연구 내용 구성
- 글로벌 도시와 서울의 경제 현안 파악과 정책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방법으로 통계조사와 문헌조사, 해외도시 사례조사, 자문회의 진행
 - 거시경제지표의 추이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2000~2022년)로 분석하여 거시경제 성장률 변화와 경제 이슈 진단
 - 해외 주요 도시의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추진 산업의 특성과 환경적 여건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의 중점적인 경제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경제정책을 도시별로 비교하여 특성 파악
-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해외 주요도시의 핵심산업정책 변화 진단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변화한 산업·고용·노동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서울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육성할 유망 산업군 도출
 - 글로벌 도시의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추진된 정책을 분석하여 글로벌 동향 정리
- 글로벌 도시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고 서울시 경제·산업정책에 시사점을 반영
 - 서울시에서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지

닌 금융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신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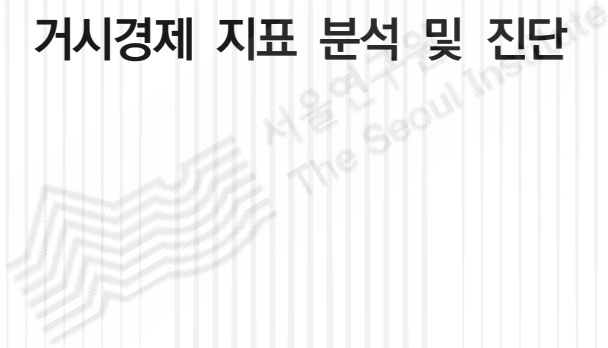
- 뉴욕, 런던, 싱가포르, 베를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조사
- 경제정책의 시사점 도출과 서울의 경제 비전 제시
 - 과거 서울의 장기경제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비전이 나아갈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제시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02

해외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 지표 분석 및 진단



- 1_ 주요 도시 거시경제 지표 분석 개요
- 2_ 주요 도시별 경제 흐름 변화 진단
- 3_ 소결

02. 해외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 지표 분석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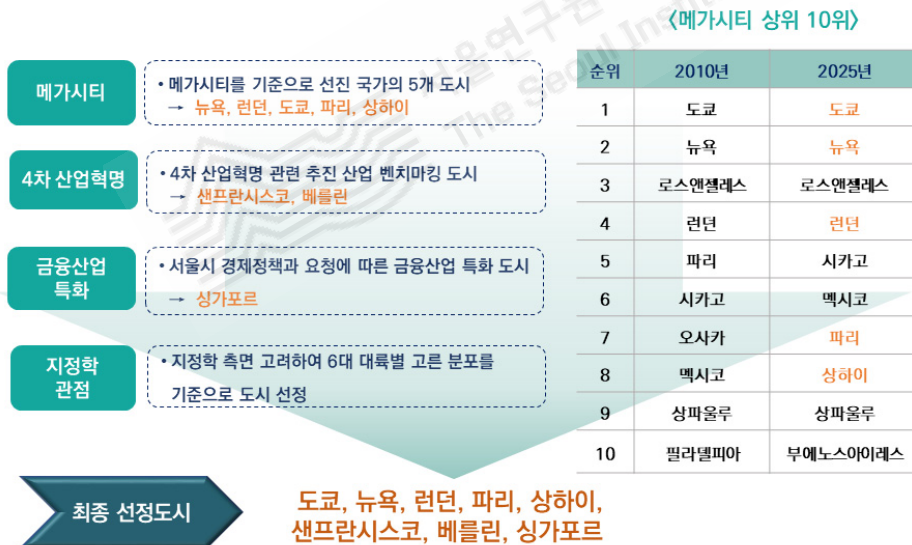
1_주요 도시 거시경제 지표 분석 개요

1) 주요 도시 선정 배경

- 조사의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 발생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 도시별 과거와 현재의 변화한 경제 환경 파악
 - 서울시의 장기경제정책 비전 수립을 위한 해외도시사례 벤치마킹
- 도시 선정의 기준
 - 메가시티(Megacity)²⁾ 개념에 입각하여 인구 규모와 국제기구 발행 자료에 준하는 도시를 선정
 - 인구 규모의 측면에서 서울은 메가시티에 해당하며, 비슷한 규모의 해외도시를 선정하여 상호 비교
 - 2010~2018년도의 메가시티 중 선진국가의 도시 선정
 -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여섯 개 대륙에 고르게 분포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선정
 - OECD, UN, IMF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해외도시의 장기경제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된 선진국의 도시 중 선정

²⁾ 거주 인구 800만 명 이상, GDP 2,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도시를 의미(2009년 정의)

- 메가시티(Megacity) 순위에서 2010년과 2025년의 순위를 종합하여 도쿄, 뉴욕, 런던, 파리, 상하이 선정
 - UN에 따르면 2025년 메가시티는 인구 2,000만 명 이상으로 정의
 - 2010년과 2025년의 메가시티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상위 20위의 메가시티 순위가 다르게 조사
 - 2010년에는 도쿄, 런던, 파리, 서울, 상하이 순이었지만, 2025년의 기준으로는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서울의 순
- 주력 산업으로서 금융산업 특화 도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군을 갖는 도시 선정
 - 금융산업 특화 도시는 뉴욕, 런던에 이어 싱가포르 포함
 - 벤처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시로 베를린과 샌프란시스코를 조사대상에 포함
- 최종적으로 글로벌 도시의 조사대상으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싱가포르, 상하이 선정



[그림 2-1] 해외 주요 도시 선정 체계

2) 주요 거시경제 지표 분석

(1) 지표체계

- 해외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4가지 기준(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상태, 대외환경)으로 지표 선정
 -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도시 국내총생산(GDP), 도시별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CPI),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실업률, 대외환경 상황을 파악하는 환율 지표 활용
 -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후 상황으로 도시별 경제상황의 변화 양상을 분석



[그림 2-2]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주요 도시별 지표의 자료 출처와 분석시점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 출처를 이용
 - 개별 지표의 분석 시점은 2000년에서 2022년 2분기까지 분기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월 단위나 연 단위를 분기 단위로 환산·조정하여 분석
 - 자료의 출처는 연방준비은행이나 해당 도시나 국가의 통계청, 경제연구원, 통계 기관, 민간 통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

[표 2-1] 거시경제 지표 출처

구분	기관명(홈페이지)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 미국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 베를린 통계청(statistik-berlin-Brandenburg) •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싱가포르 통계청(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 도쿄도청 통계(Statistics of Tokyo) • 국가통계포털(KOSIS)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sta(https://www.statista.com)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 분석내용

- 메가시티의 주요 거시경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GDP,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환율의 통계자료 활용
- 분석기간인 2000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제 이슈가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외 각 주요 도시의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 분석
 - 닷컴버블(IT버블) 붕괴(1995~2001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2010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WHO, 2020년 3월 11일)의 사건을 주요 경제 이슈로 판단
 - 닷컴버블의 여파가 가장 큰 시기는 2001년 2분기³⁾,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가장 큰 시기는 2008년 3분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은 2020년 1분기를 주요 변곡점으로 설정
 - 주요 이슈가 발생한 시점의 1년 전후로 도시별 GDP, 소비자물가, 실업률, 금리와 환율 등의 증감 변화 추이를 분석⁴⁾
 - GDP와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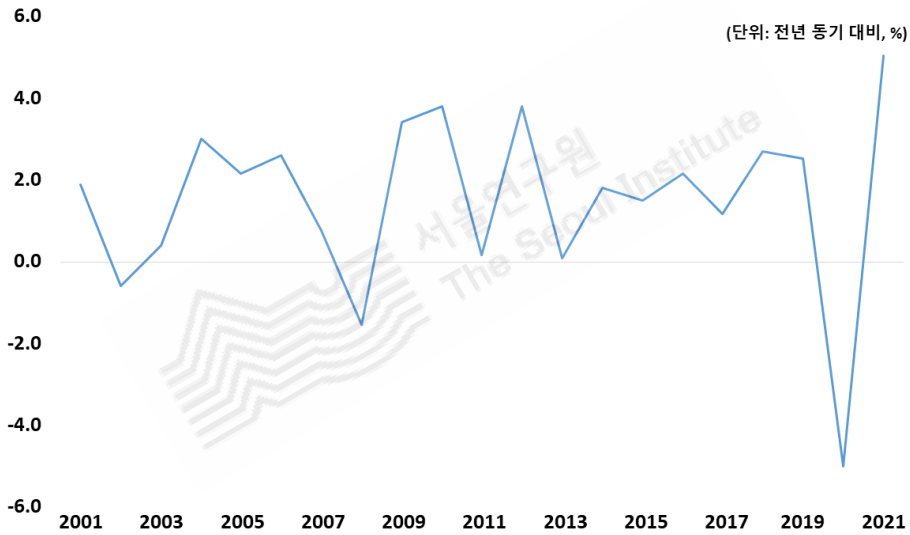
3) 분석 시작 시점이 2001년인 자료는 시기를 1년 뒤로 조정하여 분석

4) 각 자료의 관찰 값이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되어 있어, 원자료의 상황에 맞게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분석

2_주요 도시별 경제 흐름 변화 진단

1) 뉴욕

- 뉴욕 GDP⁵⁾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년) 평균 1.4% 증가
 - 증가폭이 가장 큰 시점은 2021년으로 5.0% 증가하였고, 감소폭이 가장 큰 시점은 2020년으로 5.0% 감소
 - 전반적으로 GDP는 증가했지만, 감소한 시기는 2002년 -0.6%, 2008년 -1.5%, 2020년 -5.0% 순



[그림 2-3] 뉴욕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성장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2)의 GDP는 0.6% 감소
 - 2001년의 GDP 증감률은 2000년과 비교해 1.9% 성장하였지만,

5) 자료의 출처는 <https://www.statista.com/> 참조

- 2002년은 2001년 대비 0.4% 성장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시점의 GDP 증감률은 2007년 동기와 비교하여 1.5% 감소
 - 2007년에는 0.8% 성장하였고, 2009년에는 3.4% 성장
 -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의 GDP 증감률은 5.0% 감소
 - 1년 전인 2019년의 GDP 증감률은 2.5% 증가하였고, 1년 후인 2021년에는 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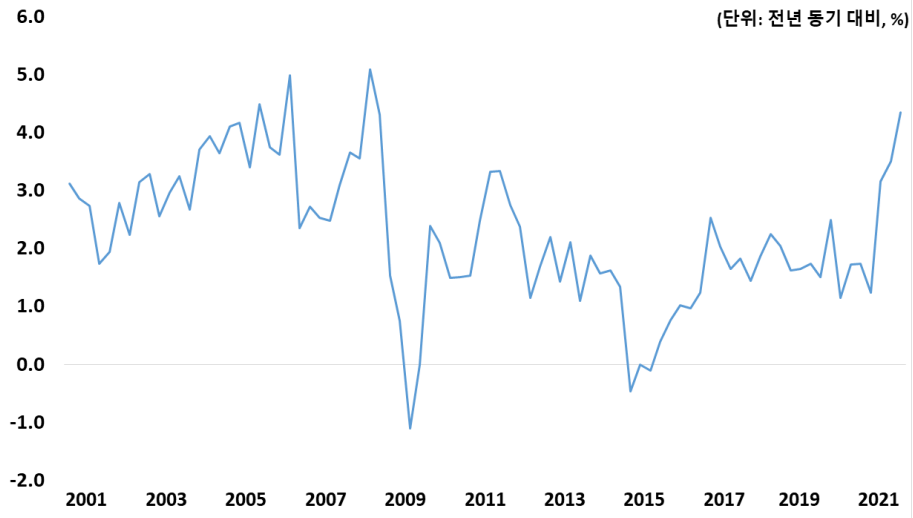
[표 2-2] 뉴욕 GDP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⁶⁾	1년 후
	1.9	-0.6	0.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0.8	-1.5	3.4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2.5	-5.0	5.0

- 소비자물가지수⁷⁾의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년) 평균 2.2% 증가
 - 2009년 2분기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하는 경향
 -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는 시기는 2009년 3분기, 2015년 1분기, 3분기로, 각각 -0.1%, -0.5%, -0.1%를 기록

⁶⁾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⁷⁾ 자료 출처는 미국노동청이며, 월 단위 자료를 분기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 기준연도 1982-1984=100으로 지역은 New York-Newark-Jersey City, NY-NJ-P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기준 실질GDP



[그림 2-4] 뉴욕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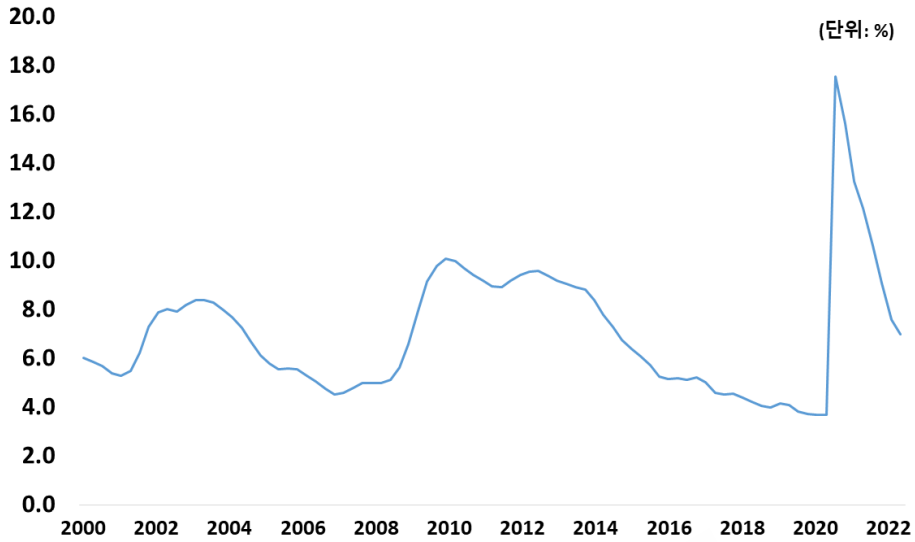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은 1.9%
 - 1년 전인 2001년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증감률은 2.6% 증가하였으며, 1년 후인 2003년에는 3.0%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 3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은 5.1%
 - 발생 1년 전 증감률은 3.2%이며, 1년 후의 증감률은 1.4%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은 2.5%
 - 2019년의 증감률은 1.6%이며, 2021년의 증감률은 1.5%

[표 2-3] 뉴욕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1분기 ⁸⁾	1년 후
	2.6	1.9	3.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3.2	5.1	1.4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1.6	2.5	1.5

- 뉴욕의 실업률 변화(2000~2022년 1분기)를 살펴보면, 분석기간의 평균 실업률은 7.0%
 - 특정 시기(2002~2004년, 2010~2014년, 2020~2021년)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
 - 시기별 평균 실업률은 각각 7.7%, 9.2%, 11.6%
 - 닷컴버블의 여파가 미치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평균 실업률은 7.0%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실업 증감률은 9.4%를 나타내며 고용 상황이 악화
 - 특히, 2009년 4분기와 2010년의 1분기의 실업률은 10.1%, 10%를 기록하였지만, 2014년 이후 7%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
 -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실업률은 13.9%이며, 특히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17.6%로 분석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

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그림 2-5] 뉴욕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2001년 2분기의 실업률은 5.5%이며, 1년 전 5.6%에 비해 0.1%p 감소
 - 1년 후인 2002년의 실업률은 7.4%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상승하며 고용상황이 악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 3분기의 실업률은 5.6%였으며, 1년 전의 실업률이 5.0%와 비교했을 때 0.6%p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1년 뒤의 실업률은 8.4%로 2.8%p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실업률은 3.7%이며, 1년 전에는 3.8%로 0.1%p 감소
 - 2021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은 14.7%로 1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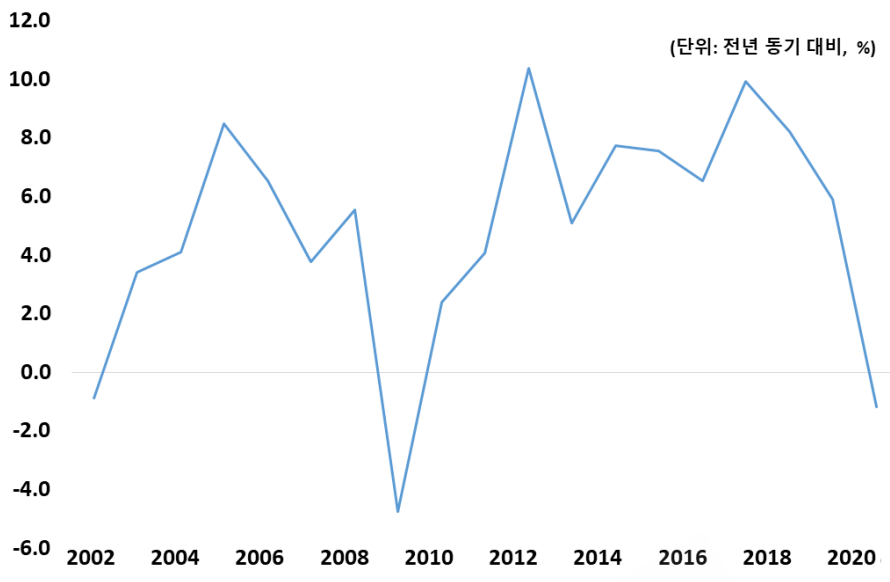
[표 2-4] 뉴욕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5.6	5.5	7.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5.0	5.6	8.4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3.8	3.7	14.7

2)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의 GDP 증감률 변화 추이⁹⁾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2002~2020년) 평균 GDP는 4.9% 증가
 -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2년으로 10.4% 증가, 그다음으로 2017년의 GDP 증감률은 9.9%로 큰 폭의 증가율 시현
 - 2017년 이후 GDP의 증감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0년의 GDP는 2019년과 비교하여 1.2% 감소
 - 분석기간 중 성장이 감소한 시기는 2002년, 2009년, 2020년으로 GDP 감소율은 각각 -0.9%, -4.7%, -1.2%

9) 자료 출처는 연방준비은행이며,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단위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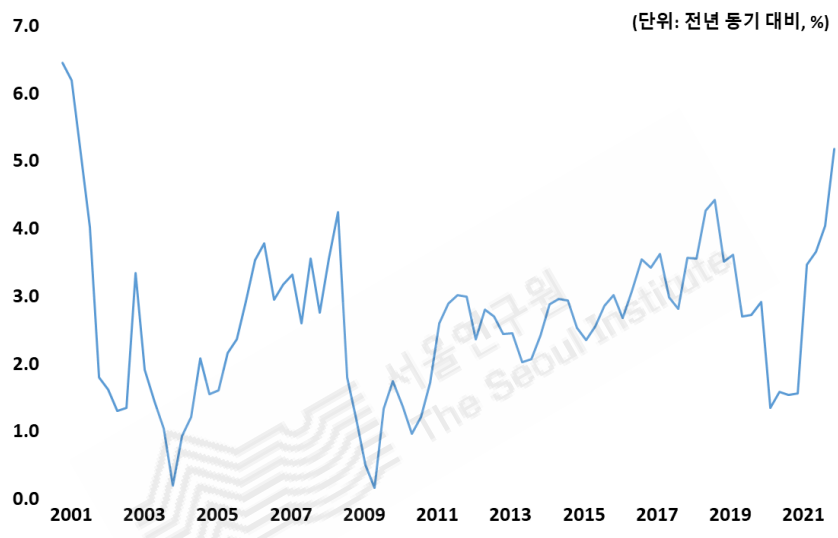
[그림 2-6] 샌프란시스코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2~2020년)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로 GDP 증감률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3)의 GDP는 3.4% 증가
 - 2002년의 GDP는 0.9% 하락하였으며, 2004년의 GDP는 4.1%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함
 - 2007년의 GDP는 3.8% 증가하였지만, 2009년의 GDP는 4.7%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2019년의 GDP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5.9% 증가

[표 2-5] 샌프란시스코 GDP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3년 ¹⁰⁾	1년 후
	-0.9	3.4	4.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3.8	5.6	-4.7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5.9	-1.2	-

- 샌프란시스코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2.7%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하락한 시기는 없었으며, 증가 폭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1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6.5%, 6.2%
 - 증가폭이 적었던 시기는 2004년 1분기 0.2%, 2009년 3분기 0.2%, 2020년 1.4%
 - 2022년 1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2% 증가



[그림 2-7] 샌프란시스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¹¹⁾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에는 1.8% 증가하였으며 1년 전과 후 시점에는 각각 2.7%, 1.9%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3% 증가
 - 1년 전인 2007년에는 3.1% 증가하였지만, 1년 후의 시기인 2009년

10) 구축 자료 기간의 한계로 닷컴버블 시기를 2002년으로 설정

11) 시점의 증감률은 해당 시점의 4분기 단순 평균 수치

에는 0.9%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 시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
 - 1년 전인 2019년에는 3.1% 증가하였고, 1년 후인 2021년에는 3.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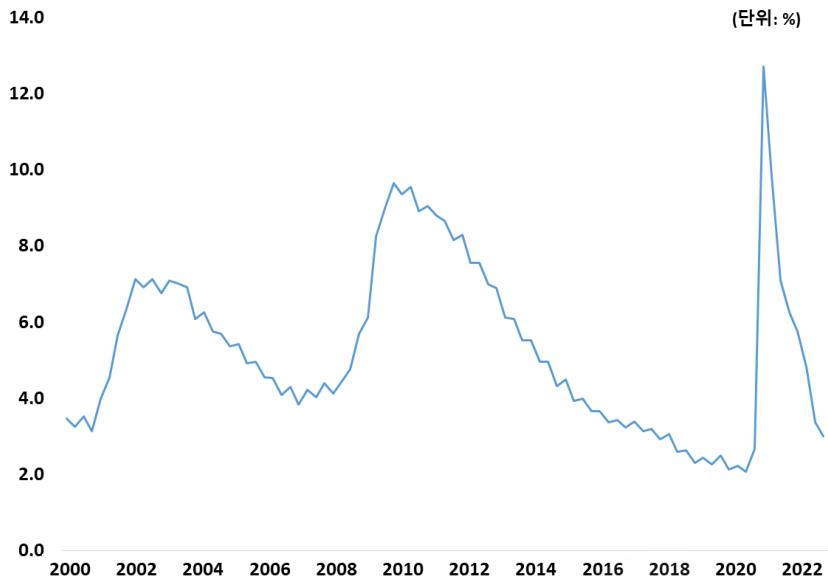
[표 2-6] 샌프란시스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1분기 ¹²⁾	1년 후
	2.7	1.8	1.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3.1	4.3	0.9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3.1	2.9	3.2

- 샌프란시스코의 실업률 변화¹³⁾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2년 1분기) 평균 실업률은 5.3%
 - 분석기간 실업률이 급등한 시점은 2003년 1분기에 7.1%, 2009년 3분기에 9.7%, 2020년 2분기에 12.7%를 기록
- 세 시점은 주요 경제 이슈 발생시점과 비슷하며, 시점을 전후로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13) 자료 출처는 연방준비은행이며, 월단위 자료를 분기단위로 변환하여 분석



[그림 2-8] 샌프란시스코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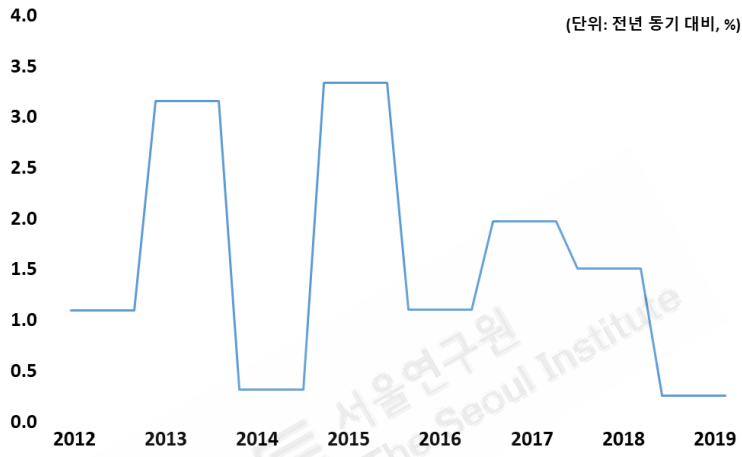
- 닷컴버블 시기(2001년)의 실업률은 4.6%이며, 1년 전의 평균 실업률은 3.5%이며, 1년 후의 평균 실업률은 6.5%로 실업률이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의 실업률은 5.7%이며, 1년 전의 실업률은 4.4%, 1년 후의 실업률은 8.3%로 1년 동안 실업률이 2.6%p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년) 시기의 실업률은 2.7%이고, 1년 전에는 이보다 0.4%p 낮은 2.3%
 - 1년 후 실업률은 9.0%로 팬데믹 선언 후 1년 동안 실업률이 평균 6.3%p 급증

[표 2-7] 샌프란시스코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3.5	4.6	6.5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4.4	5.7	8.3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2.3	2.7	9.0

3) 도쿄

- 도쿄 GDP¹⁴⁾의 분석기간(2011~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등락폭은 시기에 따라 상이
 - 2013년은 3.2% 증가하였다가 2014년은 0.3%만 증가하였지만, 2015년은 3.3% 증가
 - 이후 1% 이상의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다, 2019년에는 0.3%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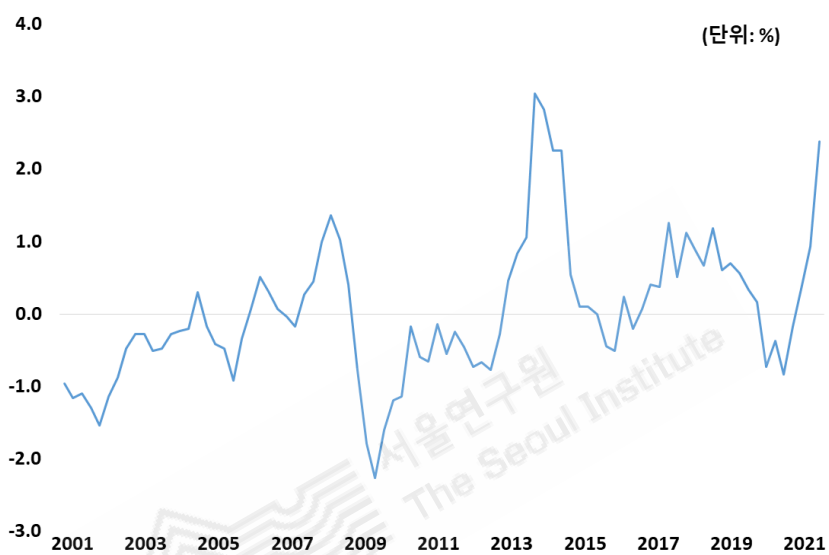


[그림 2-9] 도쿄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11~2019년)

-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2년 2분기) 평균 1.5% 증가
 - 2001년에서 2022년 2분기까지 도쿄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 증감률은 0.02%
 - 2006년 2분기에서 2009년 1분기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
 -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간 전년 동기보다 평균 0.5% 감소

¹⁴⁾ 연 단위 자료를 분기로 조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구축의 한계로 분석 기간은 2011~2019년으로 단위는 백만 엔

- 2013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지만, 2015년 3분기, 2016년 2분기, 2017년 2분기에 감소율이 각각 0.2%, 0.4%, 0.5%
- 2014년 2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 증가
-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
- 2022년 2분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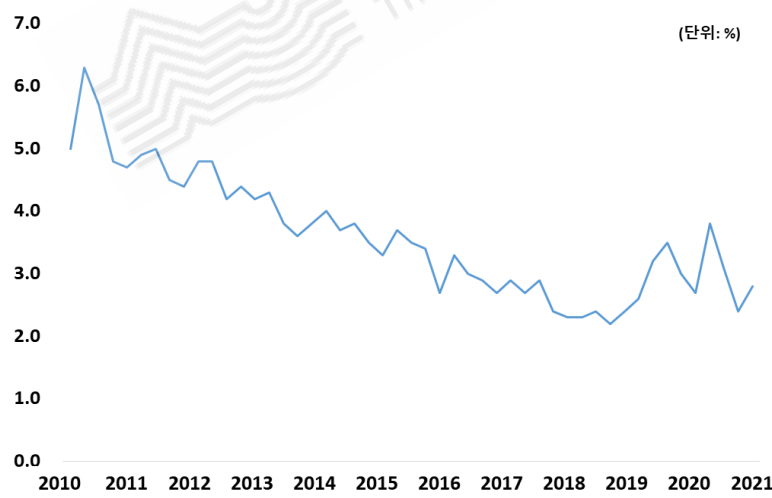
[그림 2-10]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 주요 경제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이 발생한 2002년 1분기에는 -1.5% 감소
 - 1년 전인 200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줄었고, 1년 후에는 0.7% 감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는 1.4% 올랐고, 1년 전인 2007년은 0.4% 증가
 - 1년 후인 2009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대비 0.3%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대비 0.6% 증가
 - 2019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8% 증가, 2021년에는 0.1% 하락

[표 2-8]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1분기 ¹⁵⁾	1년 후
	-1.1	-1.5	-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0.4	1.4	-0.3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0.8	0.6	-0.1

- 도쿄의 실업률¹⁶⁾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평균 4.1%이며, 특정 시점인 2001년, 2010년, 2021년에 높아지다가 하락하는 추세
 - 2000년 1분기에 5.3%였으며 4분기에는 4.2%까지 떨어졌지만,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 2분기에는 6.1%까지 상승
 - 2003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향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금융 위기 발생으로 도쿄의 실업률도 다시 증가
 - 2010년 2분기에 6.3%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찍은 후 2019년까지 하향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며 2020년 1분기부터 다시 실업률이 상승



[그림 2-11] 도쿄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 1분기)

15)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16) 자료 출처는 도쿄도(<https://www.toukei.metro.tokyo.lg.jp>) 참조

- 주요 경제 이슈에 따른 전후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의 실업률은 5.4%였으며, 1년 전후 시점의 실업률은 각각 4.9%, 5.6%
 - 닷컴버블 이후로 실업률이 다소 높아졌고, 악화된 고용 상황이 지속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시점의 실업률은 3.9%이며, 1년 전후 시점의 실업률은 각각 3.7%, 4.4%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아,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고용에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실업률은 2.6%로 1년 전보다 3%p 증가
 - 팬데믹 선언 1년 후에는 3.1%로 실업률이 더 높아졌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도쿄의 고용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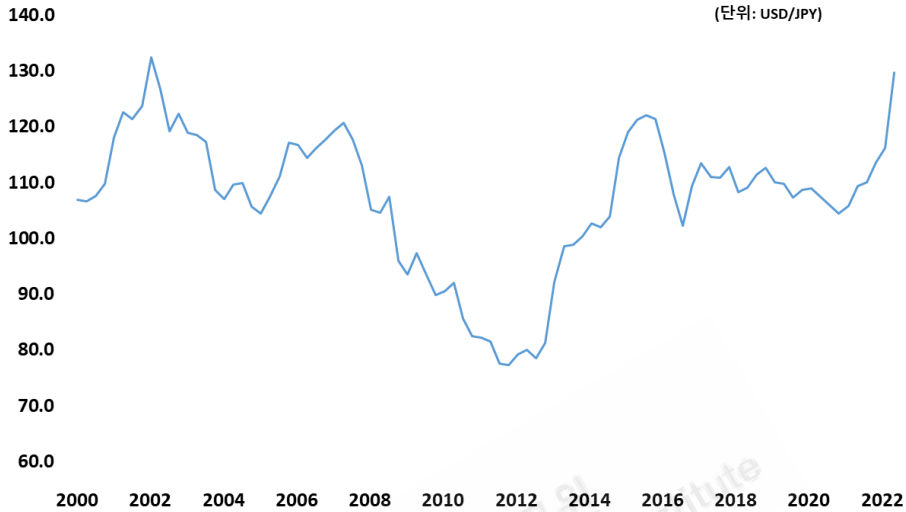
[표 2-9] 도쿄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4.9	5.4	5.6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3.7	3.9	4.4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2.3	2.6	3.1

- 일본의 달러당 엔화 환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2년 2분기 기간 평균 107.1엔
 - 전반적으로,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환율이 높아졌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변동
 - 2002년 1분기 132.5엔으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최소는 2011년 4분기에 77.3엔을 기록
 - 2002년 1분기 이후로 달러당 엔의 환율은 2012년까지 감소하면서 엔화의 가치는 상승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달러당 엔의 환율은 높아지면서 엔화의

가치가 하락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 달러당 엔화 환율은 129.7엔으로 2015년 이후 엔화 가치가 더 감소



[그림 2-12] 일본 환율 변화 추이(2000~2022.2분기)

- 주요 경제 이슈 시기 전후의 도쿄의 거시경제 지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환율은 각각 122.6엔, 107.6엔, 109.0엔으로 분석기간 평균(107.1엔)을 상회
 - 닷컴버블의 시기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은 122.6엔이고, 1년 전후로 각각 110.4엔, 126.1엔을 기록
 - 닷컴버블 이후로 엔화의 가치는 3.5% 하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던 시기에는 환율이 107.6엔이고, 1년 전후로 환율은 각각 110.2엔, 95.2엔을 기록
 -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시기의 환율은 109.0엔이며, 1년 전후로 엔화는 각각 109.0엔, 106.0엔을 기록
 - 팬데믹 선언 이후 환율은 하락하였고, 엔화의 가치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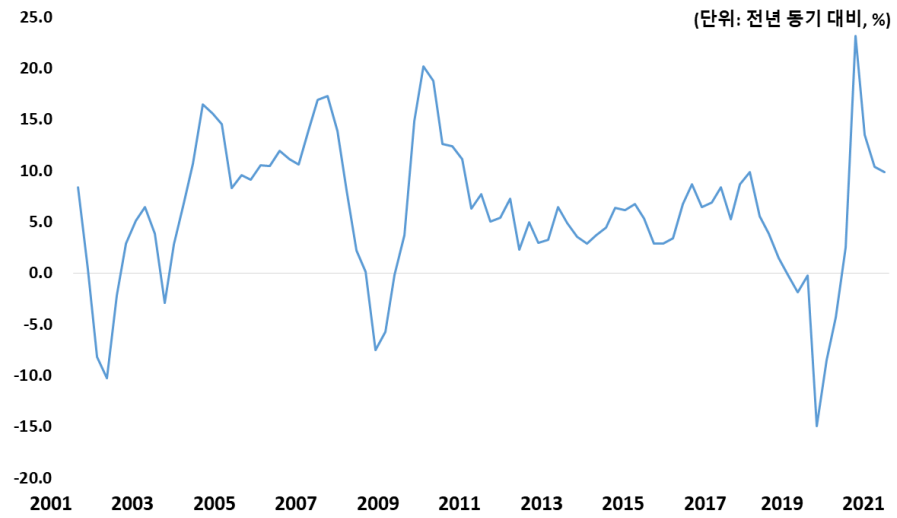
[표 2-10] 도쿄 환율 변화(USD/JPY)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110.4	122.6	126.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110.2	107.6	95.2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109.0	109.0	106.0

4)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GDP¹⁷⁾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년 1분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6.0% 성장
 - 특정 시점인 2002년 전후, 2009년 전후, 2020년 전후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성장
 -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시점은 2021년 2분기로, 2020년 2분기에 비해 23% 성장
 -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시점은 2020년 2분기로, 2019년 2분기에 비해 14% 감소

17) 자료는 싱가포르 통계청이며 자료 기간은 2000~2022년 1분기



[그림 2-13] 싱가포르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로 GDP 증감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이 발생한 2001년 2분기의 GDP 증감률은 0.3%이며, 2001년 1분기의 증감률은 2000년 1분기 대비 8.3%
 - 2002년 평균 GDP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4.5%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 3분기의 GDP 증감률은 0.1%
 - 1년 전인 2007년의 GDP 증감률은 10.4%이며, 1년 후인 2009년의 GDP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2.4%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GDP 증감률은 0.3%
 - 2019년의 GDP 증감률은 0.5%이며, 2021년 GDP 증감률은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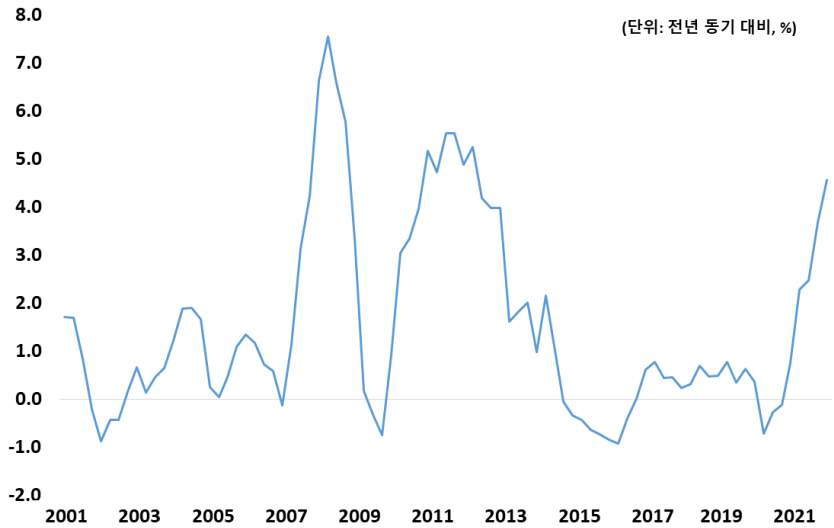
[표 2-11] 싱가포르 GDP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분기 전 ¹⁸⁾	2001년 2분기	1년 후
	8.3	0.3	-4.5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10.4	0.1	-2.4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0.8	0.3	-6.3

- 싱가포르의 소비자물가지수¹⁹⁾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2년 1분기)의 평균 1.6% 증가
 -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시점(2001~2002년, 2009년, 2015~2016년, 2020년)에서는 감소
 -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가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08년 2분기로, 7.5% 상승
 - 그다음으로 높은 시점은 2011년 3~4분기에 5.5%
 -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시점은 2016년 2분기로 -0.9%를 나타내며, 그다음으로 2009년 4분기에 -0.7%

18) 자료구축의 한계로 싱가포르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의 산출 값은 2001년 1분기부터 시작

19) 자료의 출처는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https://www.singstat.gov.sg/>)이며 기준연도는 2019=100 월단위를 분기로 평균 환산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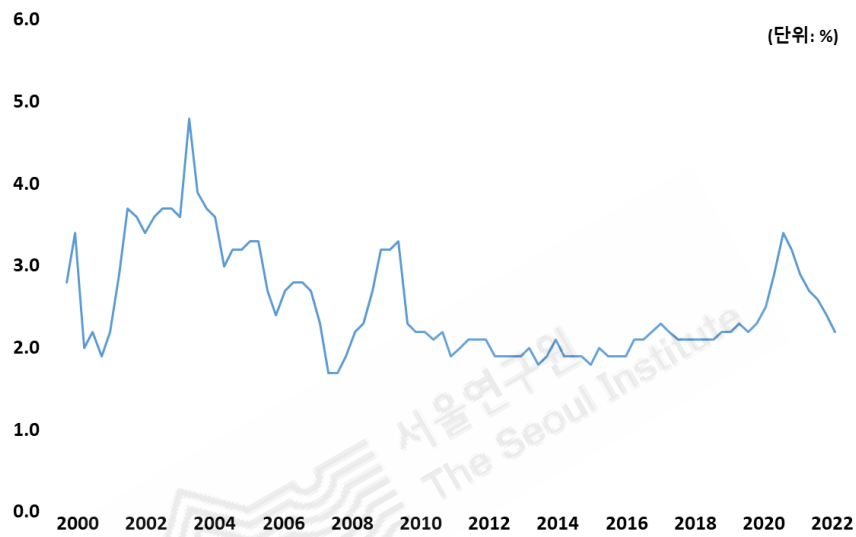
[그림 2-14] 싱가포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0~2022년)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점에는 1.7% 증가했으며, 1분기 전 증감률도 보합상 태지만, 1년 후에는 1.6% 하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6% 증가
 - 1년 전의 시점에는 5.4% 증가했지만, 1년 후의 시점에 증가율은 2.3%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4% 증가
 - 1년 전의 시점에는 0.6% 증가하였고, 1년 후의 시점에는 0.1% 증가

[표 2-12] 싱가포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분기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1.7	1.7	-1.6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5.4	6.6	2.3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0.6	0.4	0.1

- 싱가포르의 실업률²⁰⁾ 변화(2000~2022년 1분기)를 살펴보면, 분석기간의 평균 실업률은 2.5%
 - 실업률은 일부 시점인 2003년, 2009년, 2020년에 높아졌는데, 각각 4.8%, 3.3%, 3.4%를 기록
 - 이는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로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경향



[그림 2-15] 싱가포르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점인 2001년 2분기에는 실업률이 2.2%였으며, 2000년에는 2.4%로 소폭 감소
 - 1년 후의 실업률은 3.4%로 1.2%p 증가하며 고용 상황이 악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점의 실업률은 2.3%이며, 1년 전인 2007년의 평균 실업률은 1.9%
 - 1년 후인 2009년의 평균 실업률은 3.1%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집중 기간보다 0.8%p 증가

20) 자료는 싱가포르 통화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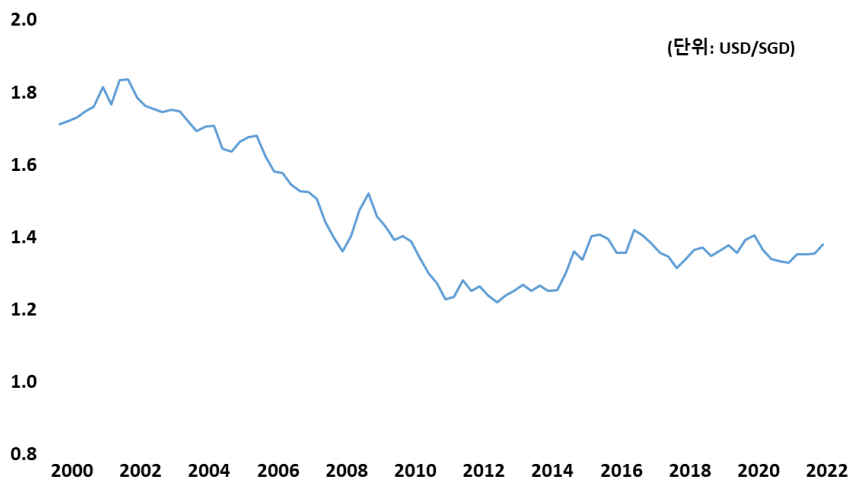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실업률은 2.5%였으며, 1년 전인 2019년 평균 실업률은 2.3%로 선언 시점보다 0.2%p 하락
 - 1년 후인 2021년의 평균 실업률은 3.1%이며, 팬데믹 선언 이후로 실업 상황이 악화

[표 2-13] 싱가포르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2.4	2.2	3.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1.9	2.3	3.1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2.3	2.5	3.1

- 싱가포르 환율²¹⁾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석기간 평균 환율 변동은 1.5달러
 -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달러당 싱가포르 달러의 환율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8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
 - 2011년 1.2까지 감소하여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다시 1.5달러까지 상승하고, 2022년 2분기에는 1.4달러

21) 자료는 싱가포르 통화청 참조



[그림 2-16] 싱가포르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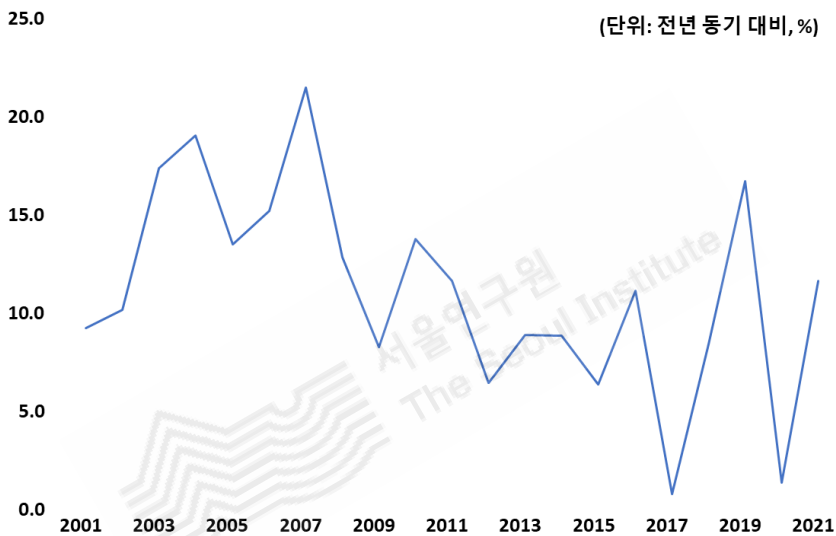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싱가포르의 환율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의 시기에는 미국 달러 대비 싱가포르 달러 환율은 1.8달러이며, 1년 전후로 각각 1.7달러, 1.8달러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점의 환율은 1.4달러이며, 1년 전후는 모두 1.5달러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환율은 1.4달러이며, 1년 전후의 변화는 보합

[표 2-14] 싱가포르 환율 변화(USD/SGD), 2000~2022년 2분기)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1년 후
	1.7	1.8	1.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1.5	1.4	1.5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1.4	1.4	1.4

5) 상하이

- 상하이 GDP²²⁾ 증감률의 변화(2001~2021)는 분석기간 중 평균 11.1% 증가
 - GDP의 증감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07년으로 21.5%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004년에 19.1% 증가
 - 증가 폭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7년과 2020년으로 각각 0.8%, 1.4%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1.7% 증가



[그림 2-17] 상하이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 경제 이슈 상황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 폭이 작았던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2년)에서 상하이 GDP의 증감률은 10.3%로 증가했고 2001년에는 9.3%, 2003년에는 17.4%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기(2008년)의 GDP 증감률은 12.9%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1.5%, 2009년에는 8.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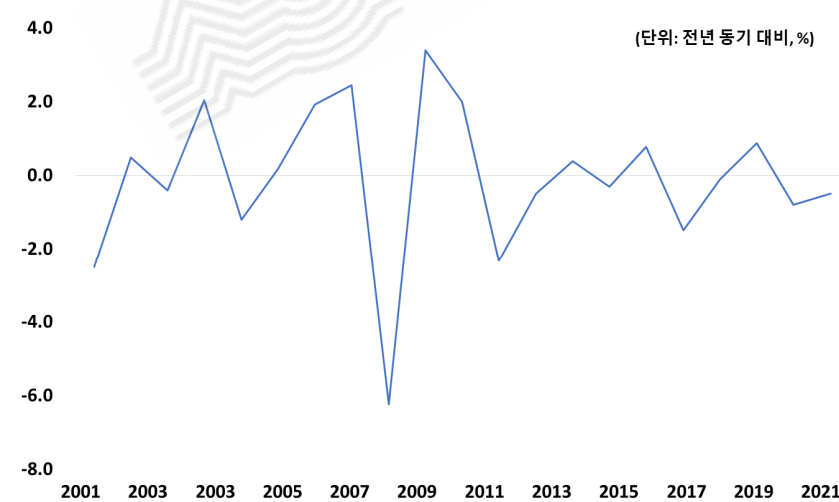
22) 자료는 국가통계국으로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21년이며 연단위 자료를 활용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년)의 GDP 증감률은 1.4%이며 2019년에는 16.8%, 2021년에는 11.7% 증가

[표 2-15] 상하이 GDP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²³⁾	1년 후
	9.3	10.3	17.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21.5	12.9	8.3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16.8	1.4	11.7

- 상하이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의 평균 증감률은 -0.1%
 -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0년으로 3.4%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2008년에는 2.5%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의 감소폭이 가장 큰 시기는 2009년으로 6.2% 감소하였고 그다음으로 2012년에 2.3% 감소



[그림 2-18] 상하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23)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기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5% 증가
 - 반면에 2001년에는 2.5% 하락하였고 2003년에는 0.4% 하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2008)에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5% 증가
 - 1년 전인 2007년에는 1.9% 성장한 반면, 1년 후인 2009년에는 6.2%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5% 하락
 - 2019년에는 0.9% 증가한 반면, 2021년에는 0.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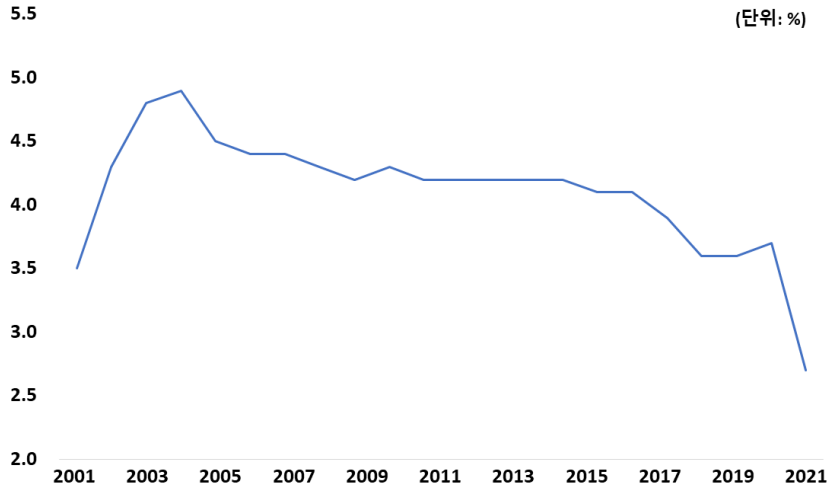
[표 2-16] 상하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²⁴⁾	1년 후
	-2.5	0.5	-0.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1.9	2.5	-6.2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0.9	-0.8	-0.5

- 상하이 실업률²⁵⁾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1년) 평균 실업률은 4.3%
 - 실업률이 높은 시기는 2002년에 4.8%, 2003년에 4.9%를 기록
 - 2021년까지 상하이의 실업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7%로 분석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

24)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25) 자료 출처는 국가통계국이며 등기실업률(등록된 실업률) 수치 사용



[그림 2-19] 상하이 등기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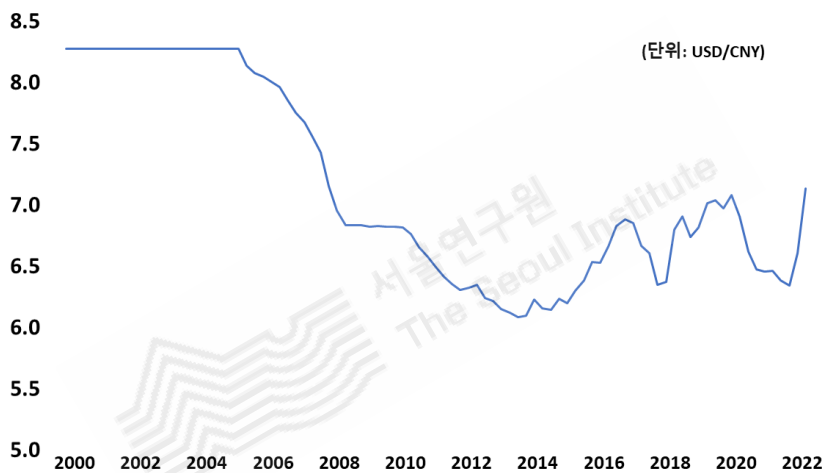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의 전후로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이 발생한 2001년의 실업률은 4.3%, 1년 전과 후는 각각 3.5%, 4.8%로 닷컴버블 이후 실업률이 0.5%p 상승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점의 실업률은 4.2%이며 1년 전과 후는 4.3%로 동일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점의 실업률은 3.7%이며 1년 전에는 3.6%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년 후 실업률은 1.0%p 감소한 2.7%를 기록

[표 2-17] 상하이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1년 후
		3.5	4.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4.3	4.2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3.6	3.7

- 미국 달러당 위안 환율²⁶⁾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2년 2 분기)에 평균 7.1 위안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환율이 8.3위안을 유지하다가 2013년 6.1위안까지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상승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을 전후로 환율 변화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 닷컴버블 시기의 환율은 발생 시점과 1년 전과 후의 환율은 8.3위안으로 동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점인 2008년과 1년 후의 환율은 6.8위안으로 변화가 없으며 1년 전인 2007년에는 7.3위안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환율은 7.0위안이며 1년 전인 2019년은 6.9위안, 1년 후는 6.8위안



[그림 2-20] 상하이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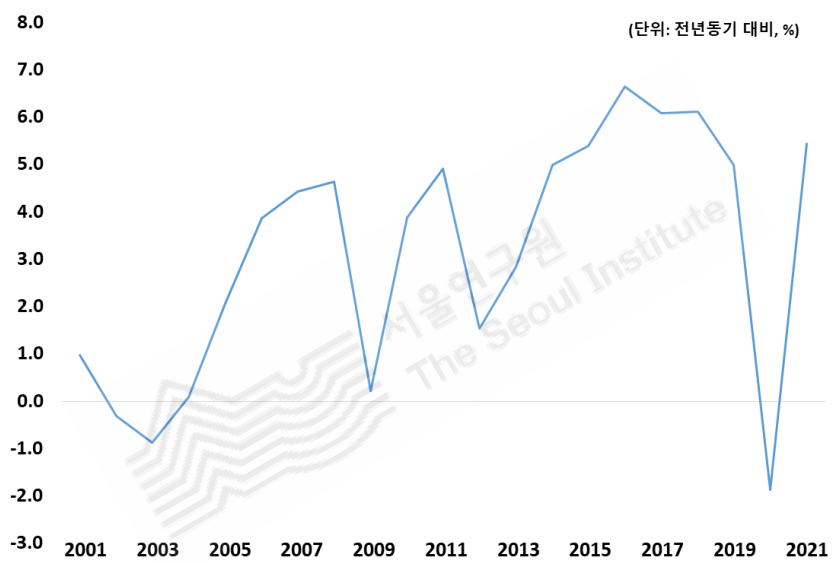
[표 2-18] 중국 달러당 위안 환율 변화(USD/CNY, 2001~2021년)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1년 후
	8.3	8.3	8.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7.3	6.8	6.8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6.9	7.0	6.8

26) 자료 출처는 연방준비은행 참조

6) 베를린

- 베를린의 GDP 증감률 변화 추이²⁷⁾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년) 평균 3.2%의 증가율을 기록
 -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베를린의 GDP는 매년 증가
 - 가장 크게 증가한 시점은 2016년으로 6.6%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모두 6.1% 증가
 -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시기는 2002년 -0.3%, 2003년 -0.9%, 2020년 -1.9%



[그림 2-21] 베를린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GDP 증감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2년)의 GDP 증감률은 0.3% 감소
 - 1년 전과 후를 보면 2001년에는 1.0% 증가한 반면, 2003년에는 0.9% 감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기(2008)의 GDP 증감률은 4.6% 증가

²⁷⁾ 자료는 <https://de.statista.com>이며 단위는 100만 유로

- 1년 전인 2007년에는 4.4% 증가하였고 1년 후인 2009년에는 0.2%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의 GDP 증감률은 1.9% 하락
- 1년 전인 2019년에는 5% 증가하였고, 1년 후인 2021년에는 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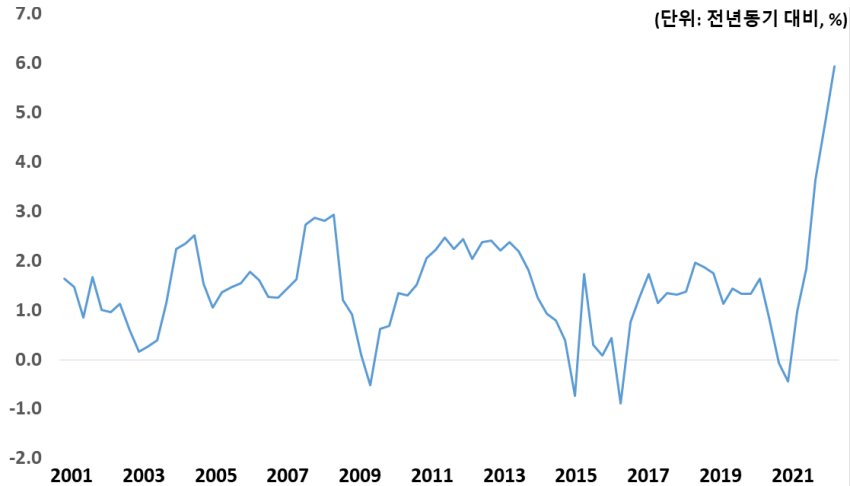
[표 2-19] 베를린 GDP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²⁸⁾	1년 후
	1.0	-0.3	-0.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4.4	4.6	0.2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5.0	-1.9	5.4

- 베를린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 변화²⁹⁾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2년 1분기)동안 평균 1.5% 증가
 -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평균 증감률은 0.9%이지만, 2007년 4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의 평균 2.8% 증가
 - 2009년 3분기의 증감률은 0.5%가 감소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0.7% 감소, 2016년 2분기에는 0.9% 감소
 - 2021년 3분기부터 소비자물가는 3.6%, 4.8%로 증가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5.9% 증가

2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29) 자료출처는 베를린 통계청이며 분기 단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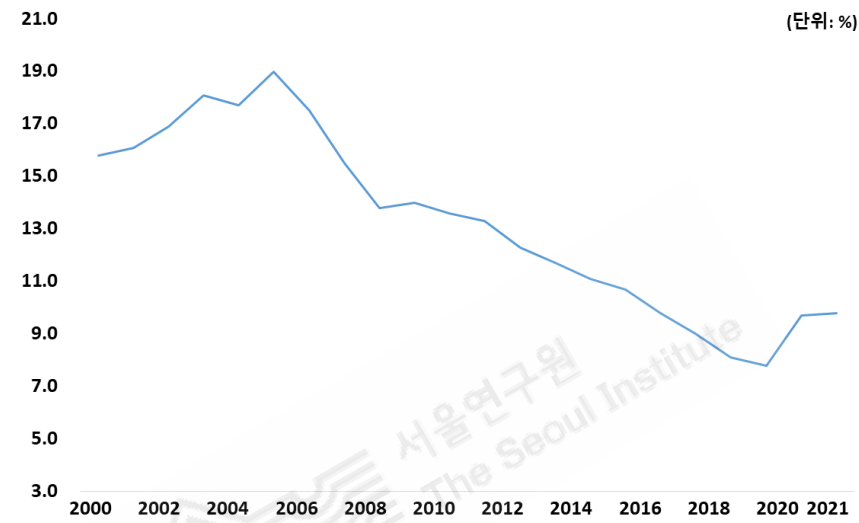
[그림 2-22] 베를린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년 1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 증가
 - 1년 전인 2001년에는 2.8%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0.4%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9% 증가
 - 1년 전인 2007년에는 2.5% 증가하였으며 1년 후인 2009년에는 0.4%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 증가
 - 1년 전인 2019년에는 1.3%이며 1년 후인 2021년에는 0.3% 증가

[표 2-20] 베를린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1분기 ³⁰⁾	1년 후
	2.8	1.2	0.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2.5	2.9	0.4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1.3	1.6	0.3

- 베를린의 실업률 변화³¹⁾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1년) 평균 실업률은 13.9%
 - 2000년에는 15.8%였으며 2005년에 19.0%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
 - 분석기간 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시점은 2019년으로 7.7%이며 2021년에는 9.8%로 증가



[그림 2-23] 베를린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1)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의 전후로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1)의 실업률은 16.1%로 1년 전 실업률 15.8%보다 0.3%p 증가
 - 1년 후인 2002년에는 전년보다 0.8%p 증가하여 16.9%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의 실업률은 13.8%이며 1년 전인 2007년(15.5%)보다 1.7%p 하락

3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31) 자료는 <https://de.statista.com>을 기준으로 2002~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부재한 2000~2001년 자료는 <https://laboureconomics.wordpress.com>에서 참고하여 비례 조정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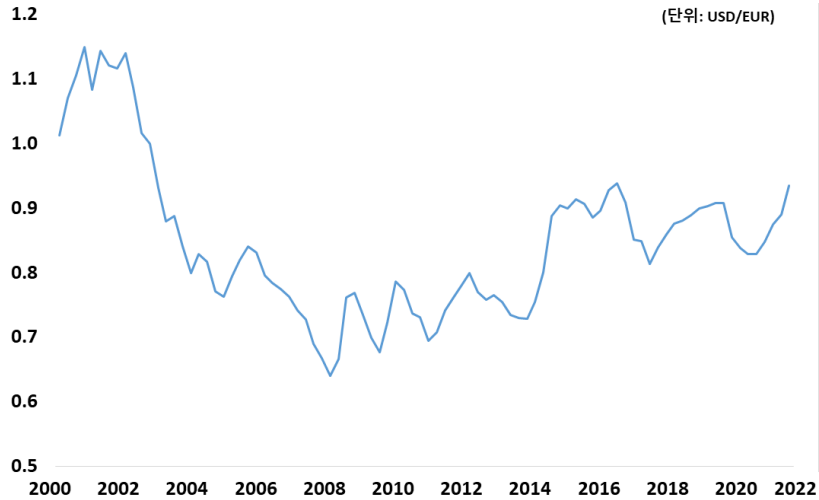
- 2009년에는 2008년보다 0.2%p 증가하여 14.0%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실업률은 9.7%이며 2019년보다 1.9%p 증가
- 2021년의 실업률은 9.8%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

[표 2-21] 베를린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1년 후
	15.8	16.1	16.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15.5	13.8	14.0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7.8	9.7	9.8

- 독일의 미국 달러당 유로 환율 변화³²⁾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2년 2분기) 평균 환율은 0.8유로
 - 2000년에서 2002년의 평균 환율은 1.1유로이고 2008년 3분기에는 0.6유로까지 하락하며 유로의 가치는 상승
 - 2008년 이후 미국 달러당 유로 환율은 2022년에는 0.9유로까지 상승하며 유로의 가치는 하락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로 독일의 환율 변화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증감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³²⁾ 자료 출처는 연방준비은행이며 2000~2022년 2분기 기간의 월 단위 자료를 활용, 파리(프랑스)의 화폐가 유로인 점을 감안하여 파리의 환율 변화는 베를린의 환율변화를 참조



[그림 2-24] 독일의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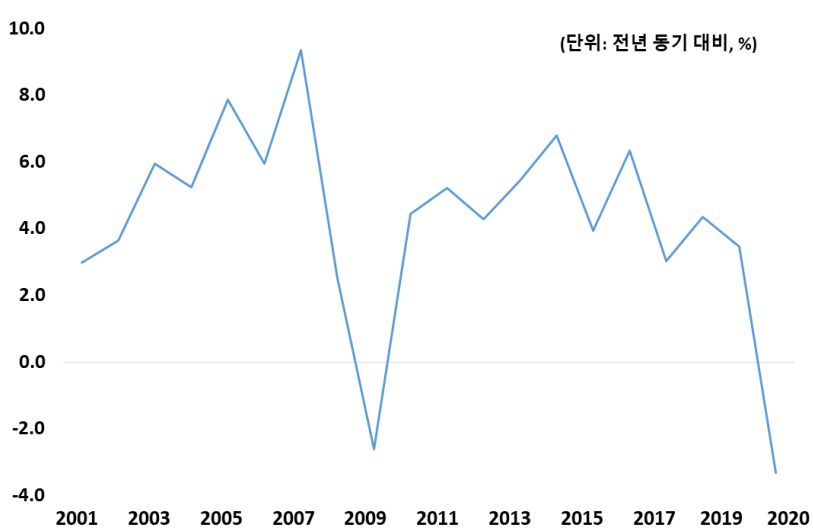
[표 2-22] 독일의 환율 변화(USD/EUR)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1.1	1.1	1.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0.7	0.7	0.7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0.9	0.9	0.9

7) 런던

- 런던의 GDP 증감률 변화³³⁾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09년,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GDP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07년으로 9.3% 증가, 그다음으로 2005년 7.9%
 -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는 2009년 -2.6%, 2020년 -3.3%

33)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연단위 자료이며 자료 출처는 statist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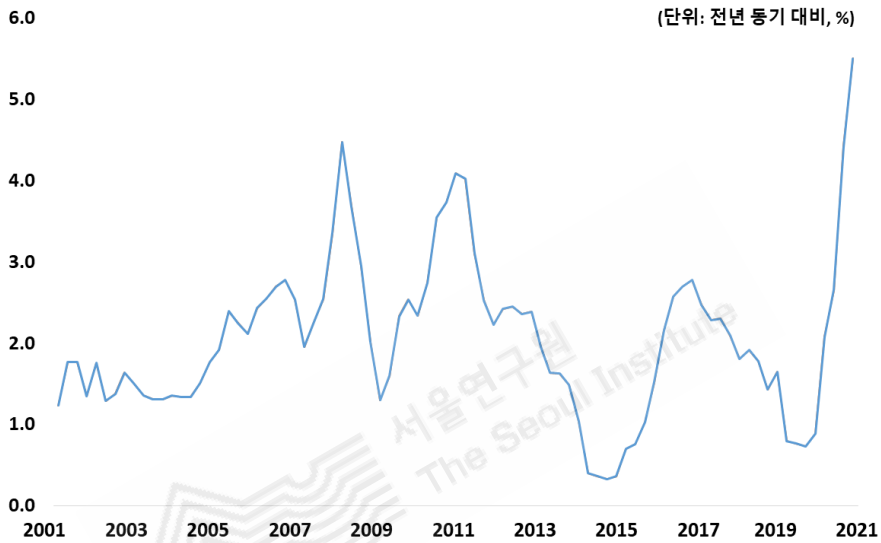
[그림 2-25] 런던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로 런던GDP 증감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2년)의 GDP 증감률은 3.7% 증가
 - 1년 전과 후를 보면, 2001년에는 3.0% 증가, 2003년에는 5.9%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기(2008년) GDP 증감률은 2.5% 증가
 - 1년 전인 2007년에는 9.3% 증가하였고 1년 후인 2009년에는 2.6%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년)의 GDP 증감률은 3.3% 하락하였지만 1년 전인 2019년에는 3.5% 증가

[표 2-23] 런던 GDP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1년 후
	3.0	3.7	5.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9.3	2.5	-2.6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3.5	-3.3	-

- 런던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³⁴⁾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2년 1분기) 평균 변화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2022년 1분기로 5.1% 증가, 그다음으로 2008년 3분기에 4.5%
 -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 폭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5년 3분기로 0.3% 증가에 그쳤으며 그다음으로 2020년 4분기에 0.7% 증가



[그림 2-26] 런던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에는 1.8% 증가하였고 1년 전과 후에는 모두 1.5%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2008)에는 4.5% 증가했으며 1년 전과 후에는 모두 2.5%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에는 1.7% 증가하였고 1년 전인

³⁴⁾ 자료 출처는 <https://www.ons.gov.uk/>이며 기준연도는 2015=100으로 월 단위 자료를 분기 단위로 전환하여 분석

2019년에도 1.7% 증가

- 1년 후인 20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8% 증가

[표 2-24] 런던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1분기 ³⁵⁾	1년 후
	1.5	1.8	1.5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2.5	4.5	2.5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1.7	1.7	0.8

- 런던의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2년 1분기) 평균 실업률은 6.9%
 - 실업률은 2008년을 전후로 높아졌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20년 이후 다시 상승
 - 2009년~2012년까지의 평균 실업률은 8.7%이며 특히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실업률은 각각 10.2%, 10.4%, 10.0%
 - 이후 2018년~2019년 평균 실업률은 4.6%로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년 3월) 이후로 2020년 3분기부터 약 2021년 2분기까지 평균 실업률은 6.7%까지 다시 상승하며 고용 불안정 상황이 지속
 - 2021년 3분기에 실업률은 5.6%로 조사되었고 2022년 1분기 실업률은 4.7%까지 하락

35)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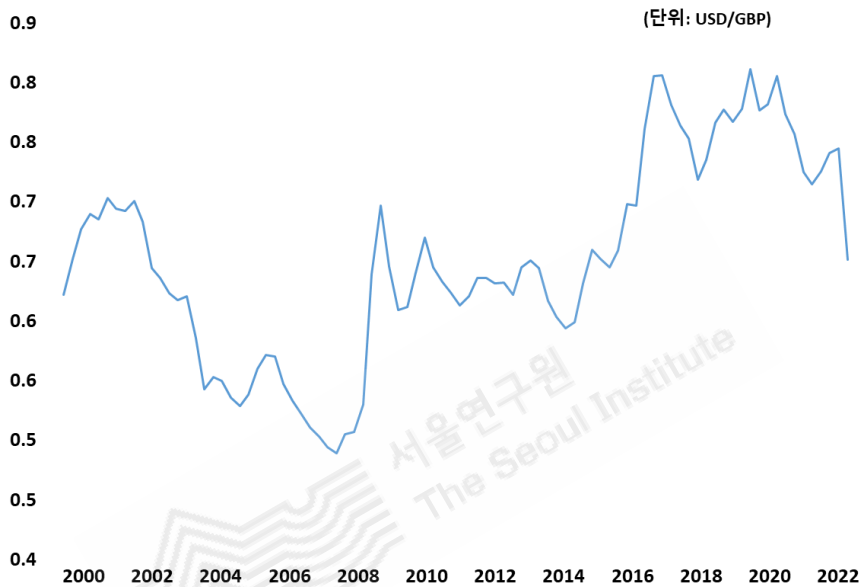
[그림 2-27] 런던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2년 1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런던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1)에는 실업률이 6.2%이며 1년 전과 후가 모두 6.9%로 닷컴버블 시점보다 0.7%p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2008)의 실업률은 7.5%이며 1년 전에는 6.7%로 감소, 1년 후에는 8.5%로 실업률 소폭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의 실업률은 4.8%이며 1년 전에는 4.4%이며 1년 후에는 1.5%p 증가한 6.3%

[표 2-25] 런던의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6.9	6.2	6.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6.7	7.5	8.5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4.4	4.8	6.3

- 런던의 미국 달러당 파운드 환율³⁶⁾ 변화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2년 2분기)의 평균 환율은 0.7 파운드
 - 2000년 초반에 0.7파운드였던 환율은 2008년에 0.5파운드까지 낮아지며 파운드의 가치는 상승
 -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미국 달러당 파운드 환율은 2016년 중반부터 2020년까지 0.8파운드로 오르며 파운드의 가치는 하락



[그림 2-28] 영국 환율 변화 추이(2000~2022년 2분기)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로 영국의 환율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의 환율은 0.7파운드이며 1년 전과 후에도 환율은 0.7파운드로 환율의 변동 없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의 환율은 0.5파운드이며 1년 전에도 0.5파운드로 동일, 1년 후인 2009년에는 0.1%파운드 오른 0.6파운드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 시기의 환율은 0.8파운드이며 1년 전과 후에도 0.8파운드로 환율의 변동은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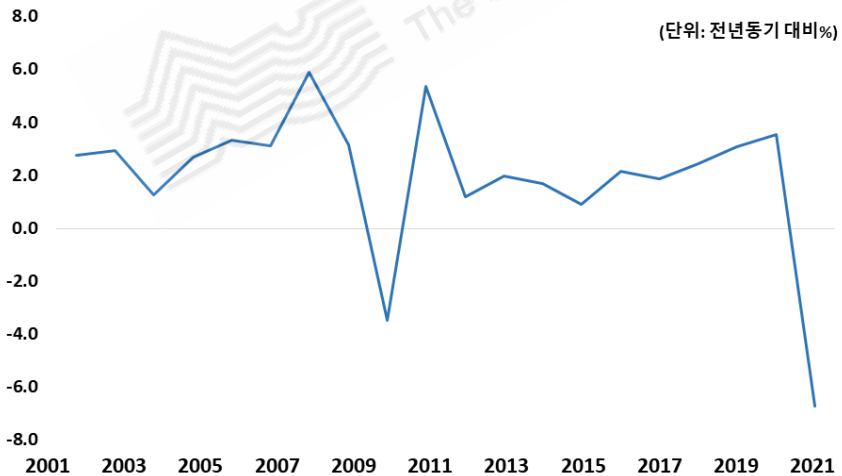
36) 자료 출처는 연방준비은행의 월 단위 자료를 분기로 환산하여 분석

[표 2-26] 영국의 환율 변화(USD/GBP)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0.7	0.7	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0.5	0.5	0.6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0.8	0.8	0.8

8) 파리

- 파리의 GDP 증감률³⁷⁾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 평균 2.0% 증가
 - 큰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는 2007년 5.9%이며 그다음으로 2010년 5.4%
 -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는 2009년 -3.5%, 2020년 -6.6%를 기록



[그림 2-29] 일드 프랑스 GDP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

37) 자료 출처는 <https://www.insee.fr>의 연간 자료이며 일드 프랑스(Île-de-France, 프랑스 중북부 파리분지 중앙부지역)의 GDP자료를 사용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GDP 증감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2년)의 GDP 증감률은 2.9% 증가
 - 1년 전과 후를 보면, 각각 2.8% 증가, 1.3%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기(2008)의 GDP증감률은 3.2% 증가
 - 1년 전인 2007년에는 5.9%증가하였고, 1년 후인 2009년에는 3.5%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2020)의 GDP증감률은 6.7% 하락
 - 1년 전인 2019년에는 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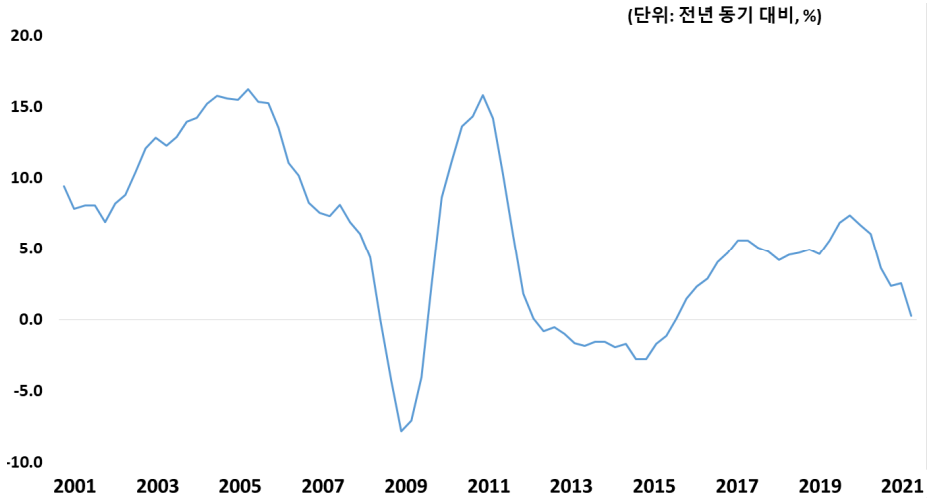
[표 2-27] 파리 GDP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³⁸⁾	1년 후
	2.8	2.9	1.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1년 후
	5.9	3.2	-3.5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년 후
	3.5	-6.7	-

- 파리의 소비자물가지수³⁹⁾의 증감률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1~2021년) 평균 6.0% 증가
 -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특정 시점에서는 감소세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시점은 2005년 3분기에 16.3% 증가, 그다음으로 2011년 2분기에 15.9% 증가
 - 지수가 하락한 시점은 2009년 평균 -5.8% 하락, 2012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평균 -1.6% 하락

3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으로 조정

39) 일드 프랑스 지역의 분기 자료로 기준연도=2015, 출처는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serie/010567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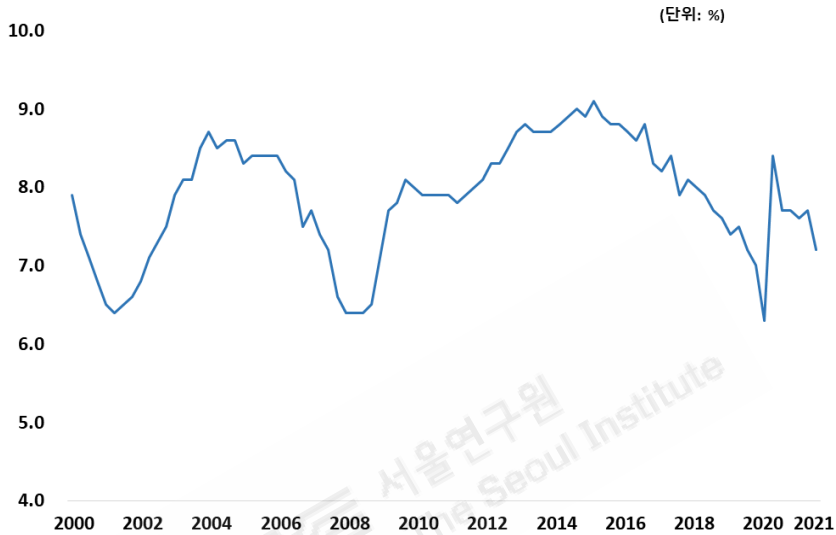
[그림 2-30] 일드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2001~2021년)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시기(2002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8.6% 증가
 - 1년 전인 2001년에는 8.4%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2.6%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 3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4% 증가
 - 1년 전인 2007년에는 7.1% 증가하였으며, 1년 후인 2009년에는 -4.8%로 하락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9% 증가
 - 1년 전인 2019년에는 5.0%이며, 1년 후인 2021년에는 6.0% 증가

[표 2-28] 파리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2년 ⁴⁰⁾	1년 후
	8.4	8.6	12.6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7.1	4.4	-4.8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5.0	6.9	6.0

- 파리의 실업률 변화⁴¹⁾를 살펴보면 분석기간(2000~2021) 평균 7.9%를 기록
 - 2015년 2분기에 실업률이 9.1%로 가장 높고 이 시기의 2년 전후 평균 실업률은 약 8.7%
 -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7%대로 감소하였지만 2020년 3분기에 8.4%를 기록



[그림 2-31] 일드 프랑스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21)

- 주요 경제 이슈 발생 시점 전후의 실업률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 닷컴버블 발생 시기(2001)의 실업률은 6.4%로 1년 전 실업률 7.0%보다 0.6%p 감소
 - 1년 후인 2002년에는 전년보다 0.4%p 증가하여 6.8%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의 실업률은 6.4%이며 1년 전인 2007년 (6.7%)보다 0.3%p 하락
 - 2009년에는 2008년보다 0.9%p 증가하여 7.3%

4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분석의 시작 시점이 2001년으로, 닷컴버블의 영향 분석 시점은 2002년 평균으로 조정

41) 일드 프랑스 지역의 분기 자료이며 자료 출처는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serie/001515843#Telechargement> 참조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시기의 실업률은 7.0%이며 2019년보다 0.4%p 하락
 - 2021년의 실업률은 7.5%로 2020년보다 0.5%p 상승

[표 2-29] 파리의 실업률 변화(%)

	전	시점	후
닷컴버블	1년 전	2001년 2분기	1년 후
	7.0	6.4	6.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년 전	2008년 3분기	1년 후
	6.7	6.4	7.3
코로나19	1년 전	2020년 1분기	1년 후
	7.4	7.0	7.5

3_소결

- 각 도시의 GDP 변화에 따른 성장을 살펴보면 세계도시 평균 성장률은 3.98%, 상하이 11.1%, 싱가포르 5.6%, 샌프란시스코 4.6% 순
 - 서울은 2.8%로 9개 도시의 평균을 하회, 도쿄는 0.6%로 최하 성장률을 기록
 - 과거 20년간 상하이는 GDP성장세는 고속 성장을 지속
- 코로나19 사태 전후 평균 성장률은 4.6%에서 -2.6%로 큰 폭으로 하락
 -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하이 1.4%, 도쿄 0.2%, 서울 -0.1%로 빠른 속도로 회복
 - 서울과 도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증가율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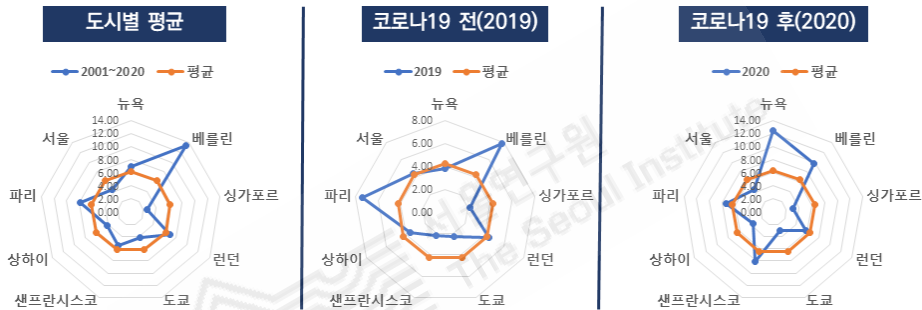
[그림 2-32] 주요 해외도시 GDP 비교

- 과거 20년간 도시별 물가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도시 평균 물가는 1.4%, 샌프란시스코 2.48%, 서울 2.44%, 뉴욕 2.2% 순
 - 파리 1.36%, 베를린 1.34%는 평균 이하, 상하이 -0.02%와 도쿄 -0.01%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
- 코로나19 전후 평균 물가는 1.1%에서 0.7%로 1%대 이하 물가 기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샌프란시스코 3.1%, 뉴욕 1.7%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9개 도시 중 높은 수준을 유지
 -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이후 0.6%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0.03%p 물가수준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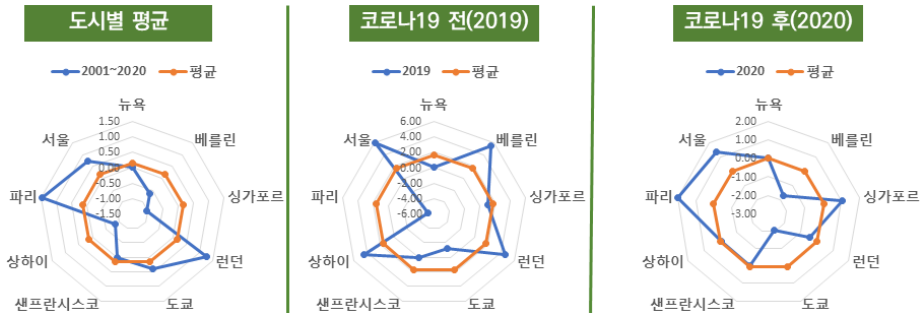
[그림 2-33] 주요 해외도시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 해외 주요도시의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도시는 고용 개선 없이 높은 실업률 유지
 - 세계도시 평균 실업률은 6.2%, 베를린 13.2%, 파리 7.9%, 런던 6.9% 순
 - 싱가포르는 2.5%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평균보다 낮은 4.4%의 실업률 기록
- 코로나19 전후 평균 실업률은 4.2%에서 6.4%로 2.2%p로 큰 폭 상승
 - 코로나19 사태 이전 높은 실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사태 이후 파리는 7.3%로 소폭 개선된 반면, 뉴욕은 12.5%로 큰 폭으로 악화
 - 서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보다 0.1%p 상승한 4.5%로 4%대를 유지



[그림 2-34] 주요 해외도시 실업률 비교

- 해외 주요 도시의 환율변화를 살펴보면 대외경제 여건은 안정적으로 유지
 - 세계도시 평균 환율 상승률은 0.1%, 파리 1.4%, 런던 1.2%, 서울 0.7% 순
 - 싱가포르 -1.0%, 상하이 -0.8%, 베를린 -0.6%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평가절상
- 코로나19 전후 평균 환율은 1.6%에서 0.01%로 변동폭이 안정적으로 전환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5.9%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1.3%로 안정적으로 변동



[그림 2-35] 주요 해외도시 환율 비교



03

해외 주요 도시의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 조사



- 1_ 조사 개요와 내용
- 2_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전략
- 3_ 주요 도시별 장기경제정책
- 4_ 소결

03. 해외 주요 도시의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 조사

1_조사 개요와 내용

- 해외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단기 경제정책, 장기 경제계획, 핵심 추진사업,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의 부문을 조사하여 분석
 - 도시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발표한 세계 기관(OECD, UN, IMF)의 발표 내용 분석
 - 해외 8개 도시의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의 단기 경제정책을 소상공인 지원책, 일자리 촉진, 방역활동 등의 관점에서 특징 조사
 - 각 도시에서 발표한 장기 경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추진사업 분석
- 주요 도시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과 분야의 세부 내용 조사
 - 개별 도시 특성에 따라 금융산업 특화 도시, 창업생태계 및 스타트업, IT 산업, 친환경산업,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도시, 교육 등의 주제로 도시 경제정책과 세부 추진사업 등 조사

[표 3-1] 해외 주요도시의 장기경제정책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도시 공통	장기경제계획	해당 도시의 장기경제플랜과 주요 내용
	핵심산업	도시별 경제정책에서 강조되는 핵심산업과 세부 정책
	일자리/창업 촉진	일자리 확대와 창업촉진을 위한 도시 정책
개별 도시	금융산업	금융업계의 일자리, 핀테크기술과산업 지원
	창업생태계/스타트업	창업생태계 강화 정책, 스타트업 지원책
	IT 산업	IT 산업현황과 활성화 산업정책
	클러스터	지역 클러스터 조성 산업정책
	친환경산업	저탄소, 친환경 서비스 관련 정책과 핵심산업
	디지털도시	글로벌 디지털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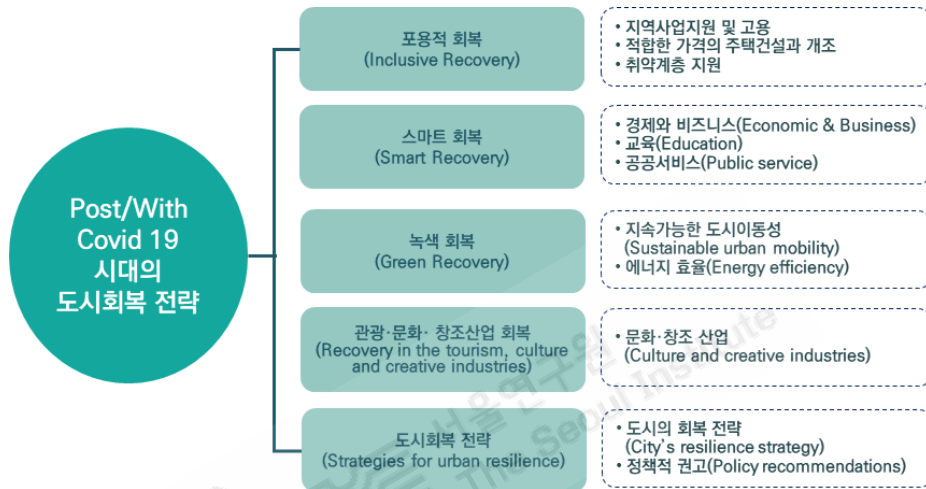
2_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전략

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 전략 방향

- 코로나19 발생과 팬데믹 선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침⁴²⁾
 -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에 세계도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적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붕괴 등의 변화가 발생
 - 이에 따라 일부 도시가 개별 위기관리 및 단기 전략을 마련한 후, 5가지 장기 도시 전략 수립
 - 5가지 도시 전략은 도시, 환경, 관광, 문화, 산업 등의 회복 강조
 - 도시 전략의 세부 대응 방안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업무 방식과 통근 패턴’, ‘사업 및 경제회복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인지 제고 및 디지털 도구’의 내용을 포함

42) 전략의 내용은 OECD, UN, IMF에서 발행한 자료의 전략 인용

- 산업구조, 노동시장 붕괴, 무역 개방도에 따라 도시에 대한 영향과 회복에 차이를 두고 시행
 - 디지털화, 친환경, 이동패턴 변화, 도시 프리미엄, 협력 거버넌스가 뉴노멀의 핵심 요소
 - 빈곤층, 이주민, 여성, 노인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동성보다 접근성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



[그림 3-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주요 대도시의 5대 회복전략

- 포용적 전략, 도시회복 전략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
 -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회복력 개선이 중점적인 코로나19 대책

[표 3-2] 해외 주요도시의 코로나19 회복 전략 요약

전략	코로나 대응 방식 및 일반적 특성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뉴욕	싱가포르
포용적 전략	지역 사업체 지원 및 고용	0	-	0	0	0	-	0	0
	적절한 주택 건설 및 개조	-	-	-	-	-	-	0	-
	취약계층 지원	-	0	0	-	0	-	0	-
녹색 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	-	0	-	-	0	0	0	0
	에너지 효율	-	-	-	-	-	-	0	-
스마트 전략	경제 및 사업체	0	-	-	0	-	-	-	0
	교육	0	-	-	-	-	-	-	0
	공공서비스	-	0	-	-	-	-	-	-
관광, 문화, 창조산업 회복	관광산업	-	-	0	-	-	-	0	0
	문화, 창조산업	-	0	0	-	-	-	0	0
도시회복 전략	도시회복력 개선	0	0	0	0	-	-	0	-
	올바른 통치와 충분한 자원	-	-	-	-	-	-	0	-

2) 주요 도시별 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1) 뉴욕

① Rebuild, Renew, Reinvent 경제회복계획

-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이 2022년 3월에 발표한 경제회복 계획으로서 팬데믹 이후 뉴욕의 경제가 형평 및 포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5개 전략 발표⁴³⁾
 - 5개 전략은 ‘뉴욕의 경제 엔진 재시동 및 공공 영역 재활성화’, ‘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형평성 있는 경제 지원’, ‘포용적 부문 성장 및 미래지향적 경제 구축’, ‘뉴욕시민을 양질의 직업 및 고수요 기술과 연결’, ‘현재와 미래의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 및 건설’ 등 시행
 - 공공 공간 재활성화와 사업체의 사무실 업무 재개를 촉구하고, 뉴욕시 내

⁴³⁾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22, Rebuild, Renew, Reinvent: A Blueprint for New York City's Economic Recovery, New York City

- 범기관(interagency)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상업지구 안전 우려 해소
- 관광객 방문을 장려하여 뉴욕의 관광산업과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을 회복하고 강화
- 브루클린 인근 거버넌스 섬(Governors Island)에 문화지구 조성
- 문화개발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 조성하여 예술가 지원 지속

② 기타 코로나19 경제 지원책

- 소기업 관련 지원과 관광 및 음식점업 관련 지원을 대표적으로 추진
 -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 기존 주정부 및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관련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 확대⁴⁴⁾
 - 뉴욕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하는 종사자 수 20명 이하 소기업 및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제공
 - 마스크, 장갑, 소독용품, 체온계 등 소기업이 영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관광업 및 음식점업 관련자를 위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
 - 음식점 영업재개 세금 공제(Restaurant Return-to-Work Tax Credit)
 - 음식점 회복탄력성 프로그램(Restaurant Resiliency Program) : 뉴욕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에서 뉴욕시민에게 음식 또는 기타 식료품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마련
 - 야외 음식점 프로그램(Open Restaurants Program): 코로나 기간에 음식점이 인도를 비롯하여 야외로 영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시 교통국에서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힘⁴⁵⁾

⁴⁴⁾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ajor-450-million-bring-back-tourism-bring-back-jobs-inclusive>

⁴⁵⁾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restaurants.shtml#permanent>

- Bring Back Tourism, Bring Back Jobs 관광업 회복 패키지⁴⁶⁾
 - 뉴욕 주정부에서는 2021년 11월에 4천 5백만 달러 규모의 ‘관광 회복, 일자리 창출’ 패키지 발표
 - 관광 복지 보조금 프로그램: 1억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지닌 관광 관련 사업체는 신규 정규직 및 임시직 직원을 최소 6개월 동안 고용할 시에 각각 최대 5천 달러 또는 2천 5백 달러 상당의 보조금 지원
 - ‘밋 인 뉴욕(Meet in New York)’ 지원금 프로그램: 국제회의 유치 를 위해 컨벤션 센터와 회의 공간 등에 대한 할인 보조금 제공

(2)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분야 대응, 심각한 경제적 스트레스 완화의 시급함 강조
 - 2020년 3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내 기존 사업 보호, 경제적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적 자원 확보와 활용
 - 연방정부, 주정부, 도시정부 차원의 공적 자금 외에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과 주거보조금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Give2SF⁴⁷⁾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행⁴⁸⁾
 - 사업체와 근로자를 위해 2021년까지 사업자 세금, 라이선스비 등의 비용 유예, 도시 내 300여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예술 및 예술가 재난대응 보조금⁴⁹⁾ 지급
 -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단위 보건 의료시스템 확장, 공공 위생 강화 및

⁴⁶⁾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ajor-450-million-bring-back-tourism-bring-back-jobs-inclusive>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11/11.08.21_rel_BACK_Korean.pdf

⁴⁷⁾ <https://www.sfhsa.org/services/health-food/groceries-and-meals/give2sf-코로나19-response-and-recovery-fund>

⁴⁸⁾ 자료: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2020, Economic Recovery Task Force Report

⁴⁹⁾ https://www.cciarts.org/_Library/docs/SF_Arts_Artists_Relief_Fund_Guidelines-upd.pdf

핏스탑 스테이션 확대, 노인 및 지역 주민 대상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지원 확대

- 경기 부양 정책으로 공공기반시설 투자, 국공채 투자, 상업용도 토지이용 완화, 2022년까지 옥외 사업 허가비용 면제 추진

(3) 런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타격을 장기적에서 회복하기 위해 시장과 자문위원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런던 회복 이사회(London Recovery Board) 조직(2020년 6월)
 - 하부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하여 해당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실무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여 도시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지역사회 충격을 최소화하며, 런던의 경제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하기 위한 런던 회복 프로그램(London Recovery Programme) 발표(2020년 10월)^{50), 51)}
 - 그린뉴딜, 확고한 사회 안전망, 청소년을 위한 뉴딜, 좋은 일자리, 디지털 접근성, 건강한 먹거리와 및 건강 체중 등에 중점적으로 시행
 - 기존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발표(2020년 3월)
 - 정부주도 정책 시행을 위한 기금 조성(52): 좋은 일자리 기금(Good Work Fund), 2022 녹색으로 회귀 기금(Grow Back Greener Fund 2022),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

⁵⁰⁾ GLA, 2020, London Recovery Programme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recovery_programme_overview.pdf)

⁵¹⁾ <https://www.london.gov.uk/publications/roadmap-safe-and-full-reopening-londons-economy#3-long-term-into-recovery>

⁵²⁾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adiq-kickstarts-londons-covid-recovery>

(4) 파리

- 2021년 파리의사회 예산에 코로나19 지원자금 편성
 - 파리는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특별 예산 편성으로 약 12억 유로(약 1조 5,978억 6,000만 원) 지출
 - 실업자와 구직자(RSA)를 위한 비용은 2020년과 비교해 2,500만 유로(약 334억 9,525만 원)가 증가한 총 3억 8,500만 유로(약 5,158억 2,685만 원) 배정
 - 2022년부터는 주민세를 감면하고, 이전의 기업 회복플랜을 연장해 진행하는 한편, 2021-2025 실업 극복과 고용 및 취업 전략 재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
 - 2020년 12월까지 중소기업인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 시행
 - 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해 주변 배달 및 픽업 가능한 상점의 디지털 및 종이 지도를 만들어 배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월세와 관리비 감면
- 여행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원과 프로그램을 시하고, 파리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행사 운영
 - 8,000만 유로(약 1,075억 3,520만 원) 이상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여행 관련 기업에 5만 유로(약 6,72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 파리가 속해 있는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는 관광안내소(Offices de Tourisme, des Points information Tourisme)를 위한 교육 신설
 - '파리식' 올림픽 행사 운영을 준비 중이며, 수영이 가능하도록 센강을 청소하고 정비하며, 파리 택시의 친환경 전환사업 시작

3_주요 도시별 장기경제정책

1) 해외도시의 장기경제전략 현황

- 장기경제전략 현황⁵³⁾
 - 포용적 전략은 지역경제 지원, 녹색 전략은 환경적 측면의 지원, 스마트 전략은 대면 최소화 작업환경에 대한 지원, 관광·문화·창조산업에서는 여행 및 예술에 대한 지원의 내용 포함⁵⁴⁾
 - 상하이선 국가의 특성상 정확한 인구 및 경제 규모에 관한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세부 조사 내용으로 도시회복전략과 국제금융업에 대비

2) 주요 도시별 정책

(1) 뉴욕

- 뉴욕시는 경제 부문 계획을 시장실(Office of the Mayor)에서 발표하는 종합기본계획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최초의 종합기본계획 'PlaNYC 2030' 발표
 - 이어 2015년에 중장기계획 OneNYC를 수립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 발표
 - 2019년에는 기존 OneNYC 계획을 보완하여 중장기계획 'OneNYC 2050' 발표
 - 산업부문의 다양화 및 인력 개발,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통한 소득 및 인종 집단 간 불평등 해소에 주목

53) OECD(2020), UN(2020)의 내용을 인용

54) 부록 1.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도시의 정책 방향 참고



PlaNYC 2030

OneNYC

OneNYC 2050

[그림 3-2] 뉴욕시의 도시종합기본계획

자료: <https://onenyc.cityofnewyork.us/reports-resources>

① OneNYC⁵⁵⁾

- OneNYC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Our Growing, Thriving City)’,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Our Just and Equitable City)’, ‘지속가능한 도시(Our Sustainable City)’, ‘회복탄력적인 도시(Our Resilient City)’ 4개 비전과 24개 관련 과제 제시
 - 뉴욕시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과제는 첫째 비전인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의 8개 이니셔티브에 반영

[표 3-3] OneNYC 비전 및 내용

비전	내용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	뉴욕시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경제일 것이며 가족, 사업체, 근린이 번영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	뉴욕시는 고보수 직업 및 모든 사람이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이며 평등한 경제를 지날 것
지속가능한 도시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대도시가 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될 것
회복탄력적인 도시	뉴욕시의 근린, 경제, 그리고 공공 서비스는 기후 변화 및 다른 21세기 위협의 영향을 견디고 더 강하게 부상할 수 있는 준비

55) 자료는 The City of New York Mayor, New York City(2015) 참조

- 산업확대와 육성을 위해 뉴욕의 전통 경제 부문(금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패션산업)과 그 외는 신흥 부문로 구분하고, 혁신산업 개발 전략 발표
 - OneNYC에서는 혁신산업을 (1) 지적자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2)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높은 산업, (3) 신기술 개발 및 기존 기술의 혁신이 활발한 산업으로 정의
 - 예를 들어 첨단제조업(클린테크), 디자인업, 광고·미디어·예술산업, 전자상거래(E-Commerce), 바이오산업, 테크·정보산업 등 6개 부문
- 인력 개발은 저숙련 구직자 훈련과 인력 수요가 풍부한 청소년의 컴퓨터 과학과 기술교육의 확대가 목표
 - 건설업, 환경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민관 파트너십 확대
 - 저숙련 일자리 대상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개발하여 저학력 시민이 학위, 직업 경험, 기술 등의 획득 지원
 - 공립학교에서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수요가 높은 기술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 포함
 - 인력 개발 프로그램 전반에서 시가 수립한 커리어 패스웨이(Career Pathways) 전략을 따라 장기적인 부문별 기술 훈련, 직무 기반 학습 기회 제공 등 제공
- ‘주거’ 목표와 관련해서는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는 동시에 민간 시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목표
 - 구체적으로는 시영 토지 활용 극대화, 복합용도개발, 의무적 포용주택(inclusionary housing) 프로그램 도입, 임대료 지원 보조금(rental assistance) 확대 등 제시
- ‘교통’ 목표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과 고용 중심부 간의 연결성을 향상과 대중교통 프로그램 확대 계획 발표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인 ‘셀렉트 서비스 버스(Select Service Bus, SBS)’ 노선 증편, 페리 서비스 확대,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

② OneNYC 2050⁵⁶⁾

- OneNYC 2050은 '활기찬 민주주의', '포용 경제', '번성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삶',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살기 좋은 기후', '효율적인 이동', '현대적인 인프라' 8개 목표 제시
 - 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포용적인 경제' 목표에서는 4개 이니셔티브 제안
 - 뉴욕시 경제 성장의 이익이 역사적으로 일부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공유되며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근거함
 -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계속해서 수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
- 테크산업, 친환경산업, 보건산업 등 소득 수준이 높고 산업 수요가 풍부한 경제부문의 성장 지원과 제조업, 창조산업 등 기존 산업의 유지와 확대
 -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 역시 풍부한 테크산업 종사의 기회 확대 필요성 강조
 - 2019년 기준 뉴욕의 테크 생태계가 약 30만 명을 고용, 직종 평균 임금은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증액
 - 공공 차원의 다양한 인력 개발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뉴욕시의 모든 이니셔티브에 인적자본 투자 방안을 통합하는 방안 제안
 - 소기업 성장과 보존을 위해서는 규제 간소화, 신설된 '사업체 회복탄력성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체 보호 방안 제시
 - 중소기업을 위한 현대적인 상업 및 산업 공간 개발, 균형개발을 위한 시 기관의 이전,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작업공간 조성 필요성 강조
- 경제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극 집행하고 시민의 '생명선 혜택(lifeline benefits)' 접근 보장 강조
 - 노동권 강화, 퇴직연금 및 의료서비스 보장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높은 생활비와 부채 부담 해소
 - 높은 주거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⁵⁶⁾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19, *OneNYC 2050 Full Report*, New York City.

- 확대, 임대료 동결 프로그램 지속, 노숙자 보호소 마련 등의 방안 논의
-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소수자와 여성 사업주의 경제적 기회 향상, 시영 자산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자산 보호 등 포함

[표 3-4] OneNYC 2050 '포용적인 경제' 목표 관련 이니셔티브 및 세부과제

이니셔티브	세부과제
산업 다양화 및 고보수 직업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경제를 다양화하고 고보수 직업에 대한 접근을 확대 • 인적자본투자를 모든 도시 이니셔티브에 통합 • 소기업의 성장 및 유지 지원 • 균등한 성장을 위한 공간에 대한 투자
공정한 임금 및 직업 혜택 확대를 통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안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선 혜택(lifeline benefits)'에 대한 접근 보장 • 높은 생활비 및 부채 부담 해소
노동자와 커뮤니티의 목소리, 소유권, 의사결정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와 여성 사업주 소유의 사업체를 위한 경제적 기회 향상 •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s)'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강화 • 직원 소유권을 향상하여 뉴욕 노동자를 위한 가치 창출 • 시영 자산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부를 보호하고 주거 자산 창출 • 재생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의 커뮤니티 소유권 확대 • 다양한 대마초 산업 종사자를 위한 경제적 기회 확대
도시 재정 건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운영 향상을 통한 저축 증대

자료: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19, OneNYC 2050: An Inclusive Economy, New York City

- 재정개선을 위해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여 시 저축 규모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영 차량인 NYC Fleet 규모를 줄여 탄소배출과 비용 감소, 시가 임대한 부동산 자산의 사용을 효율화, 인건비 감축 방안 등을 제안

(2) 도쿄

① 「미래의 도쿄」전략⁵⁷⁾

- 도쿄도는 2021년 3월에 밝은 미래의 도쿄를 열어나가기 위한 도정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는 종합계획인 「미래의 도쿄」 전략 마련
 - 「마을·사람·일 창생(創生)법」 제9조 제1항의 도도부현 마을·사람·일 창생(創生)종합전략
 - 도쿄올림픽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생겨난 시대의 요구와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노력을 더욱더 가속화하기 위하여 「미래의 도쿄」 전략 version up 2022 수립(2022년 2월)



[그림 3-3] 도쿄도의 기본계획

자료: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choki-plan/>

- 「미래의 도쿄」 전략의 기본 전개는 지속가능한 회복의 실현,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구조개혁의 강력 추진
 - 기본 전략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여 정책 추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으로 스마트 도쿄 실현', '시대 및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민성'

② 「미래의 도쿄」 전략 version up 2022

- 미래의 도쿄 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간 「미래의 도쿄 전략」 version up

⁵⁷⁾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versionup2022/index.html#page=1>

2022⁵⁸⁾을 발표(2022년 2월)하고, 경제정책 부문에서 ‘그린&디지털’, ‘글로벌’을 강조

- 그린 부문에서는 2050년의 최종목표로서 「제로에미션도쿄」 실현의 주춧돌로서 「2030년 카본 하프」를 달성이 목표
 - 건축물의 제로에미션화, 자동차의 탈탄소화와 수소모빌리티의 확대,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제로에미션 지구 만들기, 순환경제(태양광패널 재활용, 플라스틱 순환)로의 전환, 금융기반 구축, 기술력 육성·활용
- 디지털 측면에서는 「스마트도쿄」 선행실시지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기동력과 5G 활용
 - 자동 운전서비스와 XR이벤트의 개최 등 새로운 라이프 및 엔터테인먼트의 모델 제시
- 글로벌 측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였던 해외발신 및 국제네트워크의 구축 등 국제적인 위상 강화
 - 국제회의 적극 유치, 고도인재와 외국기업의 전략적 치로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
 - 규제완화, 외국인 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쿄개업원스톱센터의 행정절차 지원

(3) 런던

- 런던의 장기경제계획의 방향성은 그린뉴딜, 디지털, 청년일자리, 건강 중심으로 진행
 -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과 코로나19 회복 차원의 지원 강조
 - 일자리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회복 펀드, 그린뉴딜 펀드, 기업 허브를 통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 제공
 - 중심활성화지역과 로열독스 클러스터 등 특구를 지정하여 지원
- 장기경제계획의 공동목표는 불평등 개선, 지역사회와 협력, 디지털기술

58)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action2022/index.html#page=1>

- 활용, 지속가능성, 시민건강개선으로 이해관계자와 시민참여 독려
- 9가지 장기 목표는 그린뉴딜, 풍부한 사회안전망, 시민을 위한 시내 중심가, 청년 뉴딜, 좋은 일자리 제공, 정신건강과 웰빙, 디지털 접근성, 건강한 식생활, 강력한 공동체 구축
 - 정책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산업과 세부 정책으로 녹색산업 분야를 주요 성장 산업으로 인식
 - 그린뉴딜 펀드로 친환경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시설 도입, 태양열 집열판 설치 지원
 - 코로나19 회복 분야 중심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일자리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한 도시 정책으로 회복 펀드 프로그램 운영, '좋은 일자리' 회사 인증, 성인의 재교육 등 지원
 - 그린뉴딜 펀드 조성으로 총 1,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소규모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제도 운영, 긴급 장비 구입 지원, 중소기업 리더 18시간 경영 교육 제공, 부동산 임차 등 투자 유치 절차 자문 제공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영국 경제의 중심지인 중심활성화지역(CAZ; Central Activities Zone) 조성
 - 시내 중심 기준으로 반경 약 8km의 지역과 금융지구인 카나리워프 지역을 지칭
 - 각종 세제 혜택 및 도시계획 허가 간소화, 총사업비의 50%를 매칭펀드 형태로 기업에 제공
 - 저탄소·친환경 서비스 정책과 관련 핵심 산업으로 그린뉴딜 펀드는 3개 분야 추진
 - 건설 분야의 탄소 절감으로 지역난방, 산업단지 태양열 집열판 설치, 가정 태양열 집열판 설치 등을 추진
 - 녹색 교통과 공공환경으로 전기버스 도입, 충전소 설치, 2030 미래지구 조성 등을 시행
 - 녹색경제 사업으로 클린테크 분야 혁신중소기업 지원

- 런던의 제로 카본 도시계획으로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소수 인종과 여성의 창업 지원, 임금 개선 등 추진

① 런던을 위한 시장의 경제개발 전략(2018)

- 런던 경제개발 전략으로 런던 시장(사디크 칸, Sadiq Kahn)이 '런던을 위한 시장의 경제개발 전략(2018)' 발표
 - 전략의 목표는 모든 런던시민에게 해당하는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좋은 런던 경제 건설
 - 소외계층이 더 이상 없도록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라는 시각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성장(good growth) 추구
 - 재교육 및 평생교육, 및 디지털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주거 및 교통 비용 감소, 공정한 임금 및 고용관행 개선 등
 - 장기적 도시 성장을 고려한 교통체계 계획,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장려로 교통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 저감
 - 에너지, 수도, 통신 등 기초 인프라 건설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이익 집단과 협력
 -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 도심 서비스 혁신, 문화 및 창조산업 지원, 핀테크 및 탄소 금융 등의 강점 부각
 - 생명과학: 장기적 투자 유치, 실험실 공간 확보, 각종 규제 완화
 - 클린 기술 혁신을 위한 센터를 건설하고 홍보하여 적극적 투자유치로 저탄소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인프라 확장 및 디지털 교육으로 특별히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 세계적 디지털기술 선점
 - 관광자원 적극적 홍보, 관광 종사자 급여인상, EU 국가와 무비자 여행에 관한 협상시도, 와이파이 존 확대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② 런던 사회 기반시설 계획 2050 (2014)

- 런던의 미래성장 관점에서 인구와 일자리, 관광객 등의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원의 변화 필요
 - 런던은 2011년 대비 2050년에는 37% 인구증가로 2050년 1,130만 명, 630만 개 일자리 예측과 더불어 런던 방문 관광객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
 - 2016년 기준으로 수자원 부족이 시작되는 등 에너지원 어려움에 직면
 - 그린 인프라를 자연재해 예방, 저수 기능, 인도 및 자전거 도로기능, 레크레이션과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독립적 기반시설 고려
 -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를 위해 적정 인센티브와 시설확보 필요
 -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장기투자 방안으로서, 주택, 수도, 에너지, 학교, 교통, 인터넷 연결 등에 지속 투자
 - 교통: 철로, 역사, 도로, 글로벌 허브 공항 건설
 - 그린 사회 기반시설: 공원, 녹지대, 그린 지붕의 녹색 네트워크 건설
 - 에너지: 국가 및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전기, 가스,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사용
 - 수자원: 수도, 우수 및 하수관로, 하수 및 홍수 위험요소 관리
 - 자원관리: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 시설
 - 디지털 인프라: 세계적 수준을 목표로 저렴하고 빠른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4) 파리

- 파리의 장기경제계획으로 환경·디지털산업, 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파리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창업·취업 등 지원
 - ‘파리 고용 부스터’ 계획으로 취업 맞춤 교육 프로그램, 고용·창출 장려, 경제활동 지원, 청년실업 구제 교육, 취업기회 제공
 - 유망 직업(디지털 관련 직업 등) 전환 위해 교육적, 재정적 지원

- 사회 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시민의 생활을 지원책은 다음과 같이 분석
 - 지역 농민, 유기 농업으로 바이오 식품, 위생/청소 제품 생산, 공동구매 네트워크 통한 식비 절감 지원
 - 주거연대기금(FSL, Fonds de Solidarité pour le Logement)으로 금융 지원, 에너지 공동구매, 인터넷·TV·집 전화 비용 지원
- 정책적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 고용, 교육, 훈련 등 기업 대상 상담 및 중소기업 키오스크 설립 지원
 -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상젤리제와 폭뜨 드 라 샤펬(La Porte de la Chapelle) 지구의 녹지화, 자전거도로 신설 사업 계획
 - 여행,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제작 관련 금융 지원, 예술인 긴급 자금 신설
- 일자리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파리 신기술 그랑프리, 파리 신기술 기금, 선진 과학도시 지원 시스템을 마련
 - 파리 창작 그랑프리, 파리 예술장인 양성 및 창업 대회를 개최하여 디자인, 예술직업, 패션 분야의 창의력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 기업의 상금 후원
 - 파리 예술장인의 공방에서 1년간 인턴 및 재취업 교육 기회 제공
 - 외국기업의 파리 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파리 랜딩'을 구축하여, 약 1년간 300유로의 정착비·사무공간 제공 이노베이션 팩토리
 - '파리코드'라는 코드 개발자 양성 프로젝트로 코딩, 디지털 활용 능력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 기술혁신 관련 해외의 신생 기업 유치 정책인 '파리 프렌치 테크티켓' 시행
-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업교육, 공공서비스 직업 체험, 경제활동 지원 정책 시행
 - 구직자 무료 직업교육 실시: IT 관련, 재활용, 환경산업,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직업, 프랑스어 등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공공서비스 직업 체험 제공: 장애인과 직업 전환 구직자 우선 채용,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 고용·창출 장려: 행정상 폐업 대상인 임대인이 사회기관이면, 사업체의 임대료 6개월 면제,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6개월 임대료 면제 등 지원

(5) 상하이

- 국제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 및 온라인 경제 산업 중심의 장기경제 계획 추진
 - 핀테크, 녹색금융 플랫폼 등의 금융산업 지원, 국제금융/항공/해운센터 건설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위한 혜택 등의 정책 실시
 - 제14차 5개년 계획 수립(2021~2025년): 도시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국제 경제/금융/해운/과학기술창신센터의 핵심 기능 도약 목표
 - 5가지 유형의 경제 가속화: 혁신형, 서비스형, 본부형, 개방형, 유동형 경제발전
 - 총본부 기능 능력의 가속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유치 및 집결 가속화
-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5규획과 2035년 비전 요강을 발표하고 정기적인 경제발전 정책 의지를 표명(2021. 1. 27.)⁵⁹⁾
 - 국제 경제 중심지이자 대외협력,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와 외국 자본의 순조로운 유입 추진 목표
 - 국제무역 중심지로서 공급망 안정, 국제 운송의 중심지로서 해운 및 항공 서비스 강화 등 4대 중심기능을 통한 해외자원 활용 확대
 - 2035년까지 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과학기술 혁신센터와 문화 대도시기능을 전면적으로 보완
- 정책적 측면에서는 신에너지, 바이오의학, 신소재, 첨단장비가 신산업으

⁵⁹⁾ 출처는 “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纲要”, 2021. 1. 30. 참조

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실시

- 2035년까지 상하이시 전면적(경제, 생활, 공공서비스 영역)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
- 무인공장, 공업 인터넷, 원격근무, 온라인 금융·엔터테인먼트·전시·의료·교육, 디자인 설계의 온라인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접촉배송, 새로운 외부 이동방식 중심 육성 추진
- 일자리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과 발전을 위한 자금 및 제도 지원
 - 중소 영세기업, 개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실업 보험료 총액의 50% 반환 등 실시
 - 상하이 졸업생 취업 지원 정책으로 취업, 창업 전습 보조금 수여, 온라인 취업 지도와 비대면 취업 지원
 - 안정적인 취업과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료 기업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금융 지원 확대
 - 소규모 납세자 개인증치세를 감면 등 개인사업자 지원 강화, 고용 단위 취업 지원
 -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 기업 발전 지원 정책으로 실업 보험, 고용 안정 반환, 훈련비용 보조, 탄력적 고용책(임금 조정, 교대근무, 탄력근무제 등) 실시
- 코로나19 발생 후 금융산업의 변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 국제항공센터, 국제해운센터 건설 계획 추진
 - 투자를 통한 핀테크 기업의 설립 지원, 기업-은행 간 크로스보더로 투자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촉진
 - 외국계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상하이 금융업의 대외개방 가속화
 - 국제 수준에 맞는 금융 비즈니스 환경조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모바일 결제 수준 향상 등과 같이 지역 내 은행업의 협력 강화

- 녹색금융 플랫폼 융합과 같은 금융 관련 서비스 강화, 금융정책 협력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

(6)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의 장기경제 계획은 대표적으로 도시종합계획(General Plan)⁶⁰⁾의 영역별 계획 중 상업 및 산업 부문계획(Commerce and Industry)⁶¹⁾과 종합경제개발전략⁶²⁾ 시행
 - 각각의 장기경제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다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과 평등한 경제적 기회 제공, 근린상업권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공통적인 내용 포함

① 도시종합계획(General Plan)

- 도시종합계획은 1945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기후변화, 도시경제, 건강한 지역사회, 평등에 가치를 두고 내용을 수시로 보완
 - 도시 경제활동 전반과 정책, 시설, 서비스, 고용 등에 대해 공공과 민간 영역이 경제적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의 역할
 - 본 계획의 상위 목표는 도시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형평성 보장', '환경의 질 확보'
 -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계획 장려
 - 신규 개발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
 - 도시의 매력을 강화하여 기업 및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문화·사회

⁶⁰⁾ 도시계획부(Planning Department)에서 수립, <https://generalplan.sfplanning.org/index.htm>

⁶¹⁾ https://generalplan.sfplanning.org/I2_Commerce_and_Industry.htm#CAI_GEN

⁶²⁾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연합정부(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가 수립,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이하 CEDS)
<https://abag.ca.gov/technical-assistance/comprehensive-economic-development-strategy-san-francisco-bay-area>

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

- 도시 거주민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실업자의 재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술이 없는 비숙련 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 상업 및 산업 기업의 유치, 사업 유지, 사업 확장 촉진

② 종합경제개발전략(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 지역 광역 경제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은 혁신과 포용의 문화로 지역 주민과 근로자에게 경제적 기회 제공과 공동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경제 만들기
 - IT 소프트웨어 혁신기업의 집중 분포하며, 접근성이 높은 상업지역의 유지와 강화에 관심 높고, 최근 의학, 생명공학, 환경 관련 기술 분야에 투자가 활발
 - 비즈니스 환경조성 및 개선, 주택 정책 및 일자리 공급과 지원, 기반시설 확충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 주요 서비스인 행정, 의료, 교육 부문 강화
 - 특히, PDR(고급 제조업의 생산, 유통, 수리), 기술산업, 나이트라이프(Nightlife) 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국제무역, 생활과학, 보건의료 산업, 패션산업, 관광산업, 청정기술산업 주목
- 일자리 확대와 창업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행
 - 비영리기관과 커뮤니티 기반 시민단체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비영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공간 안정화를 위한 입지 이전 및 확장에 대하여 금융 지원 제공, 장·단기 임대 등 온라인 창구 지원
 - 여성 창업 지원 정책으로 소액 펀드 지원, 1:1 무료 창업 컨설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 제공
- 창업생태계를 강화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포털사이트 운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전문서비스 접근 방법 등 지원

- 창업, 사업 운영 및 성장을 위한 자원 제공, 창업 관련 절차 및 용어, 온라인 자원 제공,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접근 방법 제시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1 사업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경제회복 TF 구축 및 8개 부분에 대한 해결책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연계, 안전한 재오픈 추진, 규제 부담 완화, 경제적 정의 추구, 주택 정책, 취약계층의 기본적 필요 충족, 건강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구축
 - 사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렌트비 지원, 긴급 대출 지원) 정책 시행

[표 3-5] 샌프란시스코 장기경제계획의 범위

	지리적 범위	내용적 범위	수립 연도
도시종합계획의 상업 및 산업 부분 계획	샌프란시스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 및 상업 지원 및 육성 • 고용창출과 평등한 기회 • 커뮤니티 개발 • 환경 보존 	1945년 이후 수시로 보완
종합경제개발전략	샌프란시스코 베이 9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확대 • 인력개발 • 지역차원의 경제개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고용창출과 평등한 기회 • 커뮤니티 개발 	2018

(7) 베를린

- 베를린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Masterplan Industriestadt Berlin 2018 - 2021 발표(2018년 9월 4일)⁶³⁾
 - 베를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 안정적인 산업 필요

⁶³⁾ Industriestadt Berlin, 2018, Masterplan Industriestadt Berlin 2018-2021

- 베를린 산하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베를린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혁신적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정책의 방향을 크게 4개의 분야(전문 인력과 첨단 혁신, 디지털화, 기업 환경조성, 마케팅)로, 각 분야는 각기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략 추진
-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
 - 일자리 확대, 창업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 지원, 기업 금융 지원 및 투자 기관 연결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전문인력 확보
 - 임금, 시설 투자, 회사 운영 관련 금융 지원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촉진
-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기업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수요근접성, 넓은 부지, 물류시설 등) 조성
 - 시 소유부지 매각 대신 기업에 임대, 시에서 기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후 저렴한 임대료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오피스시설의 공간적 다양화하여 복합적 기능 수행
 - 혁신과 과학기술 강화, 교통과 기술인프라 개선,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연계 강화, 기술발전 촉진 지원
- 정책적으로 의료산업, 디지털·미디어산업, 교통·물류산업, 친환경·재생에너지, 광학·음향학·마이크로시스템기술, 서비스산업, 제조업과 기계공학 산업 강조
 - 산업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시티 구현,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재정적 지원, 도시 형태 조성
 - 산업 4.0 프로젝트 기반으로 베를린 기업의 디지털화 진행
- 일자리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센터를 통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 기업 지원, 단기 고용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 지원
-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 공공 은행 통한 금융 지원 및 투자 기관 연결
- 교육부문과 연구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네트워크 구축, 직업 관련 디지털화에 중점
 - 해외 전문인력 우대 혜택 제공과 전문인력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활용
 -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실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인턴 기회 확충과 학생
 -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 Hub IoT&FinTech Berlin과 같은 시스템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기업-연구소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직업 관련 디지털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 창조산업(미디어, 패션, 음악)과 IT 관련 산업(IoT,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
 - 영화/미디어 산업: 장비 투자, 종사자 임금, 영화 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금융 지원, 박람회 참여 지원, 베를린 소재 기업이 영화, 미디어 제작시 저금리 용자 제공 및 투자 기관 연결
 - 패션 산업: 그린패션, 업사이클링 패션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Design Transfer Bonus 기관으로 패션 관련 영세기업, 중소기업 금융 지원
 - 음악 산업: Musicboard 기관을 통해 팝뮤직 활성화를 위한 금융과 교육 지원
 - IT 산업 : 창업, 연구, 고용을 위한 금융 지원(임금, 시설 투자, 회사 운영 자금 관련)

(8)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장기 경제발전 계획⁶⁴⁾은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ttee), 경제검토위원회 (Economic Review Committee), 혹은 경제전략위원회 (Economic Strategic Committee) 등에서 지속 추진
-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달성 목표
 - 국내적으로는 우수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결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강화
-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 추구
-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는 경제성장을 위한 4대전략과 4대 전략의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의 총 7가지의 전략 제시⁶⁵⁾(2017년 2월 9일)
 - 아세안경제공동체와 포용적 지역 경제 파트너십으로 무역 협력 강화하며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 심도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한 모듈화된 기술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지적재산 상용화를 위한 기관 설립 및 상용화 프로세스 단축을 위한 정부차원 지원
 -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전문가 및 금융 지원
 - 싱가포르의 공항과 항만 개발로 허브로서의 역량 강화하며, 말레이시아와 교통연결성 강화, 도시물류시스템 개발로 교통혼잡 감소 등 기대
 - 산업별 다른 접근법을 활용한 맞춤형 변화 프로그램 개발
 - 상공회의소와 여러 단체와의 협력으로 핀테크 기업의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보편세와 누진세를 고려한 공평한 조세

⁶⁴⁾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201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⁶⁵⁾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201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p>〈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의 7가지 전략〉</p> <p>① 국제적 연계성 강화 및 다양화(Deepen and diversify our international connections)</p> <p>② 고난이도 기술 획득 및 활용(Acquire and utilise deep skills)</p> <p>③ 혁신 및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Strengthen enterprise capabilities to innovate and scale up)</p> <p>④ 디지털 역량 강화(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p> <p>⑤ 역동적이고 상호 연계된 도시개발(Develop a vibrant and connected city of opportunity)</p> <p>⑥ 산업 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s)</p> <p>⑦ 혁신과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Partner each other to enable innovation and growth)</p>
--

- 싱가포르 경제 2030 비전(Singapore Economy 2030 Vision)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경제 2030 비전(Singapore Economy 2030 Vision)을 발표⁶⁶⁾(2022. 3. 4.)
 - 서비스산업 성장의 새로운 엔진 개발을 가속화
- 제조업 2030(Manufacturing 2030): 강력한 제조업 부문 구축
- 엔터프라이즈 2030(Enterprise 2030): 싱가포르의 글로벌기업을 성장시키고 현지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
 -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변화에 있어서 현지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
 -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및 특정한 필요에 대응
 - 범정부 및 파트너의 리소스 활용
 - 글로벌 인재와 벤처 육성,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활성화,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무역 2030 (Trade 2030): 무역을 강화하고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화
 - 글로벌 트레이더로서 핵심 성장: 싱가포르 현지 기업이 글로벌 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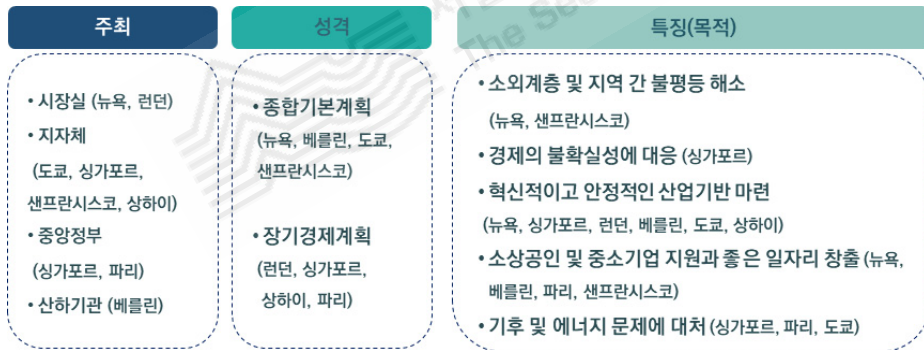
⁶⁶⁾ The Straits Times, 2022, Gan Kim Yong unveils Singapore Economy 2030 plan aimed at boosting exports to \$1 trillion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olitics/gan-kim-yong-unveils-singapore-economy-2030-plan-aimed-at-boosting-exports-to-1-trillion>

이더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

- 글로벌 트레이더 유치: 싱가포르에 글로벌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무역 증진
- 녹색경제 전략 및 싱가포르 에너지 정책 전환: 싱가포르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

4_소결

- 장기 도시정책은 도시별로 시장실, 지자체, 중앙정부 등 다양한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집행체계로 추진
 - 계획의 성격은 종합기본계획과 장기경제계획으로 정기적으로 추진
 - 계획의 주요 목적은 불평등 해소, 경제 성장 지속, 기후 문제 대처 등 복합적인 이슈 대응



[그림 3-4] 해외 주요도시 장기경제계획 요약

- 조사 도시는 공통으로 디지털과 환경 분야의 산업 집중
- 공통적인 산업 외에 유럽은 디지털, 환경 관련 산업, 미국은 문화, 관광, 의료 관련 산업, 아시아는 디지털, 금융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선정

[표 3-6] 해외 주요 도시의 장기경제정책 요약

구분	장기경제정책 요약
뉴욕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테크산업, 바이오산업으로 경쟁력 향상
런던	녹색산업 분야를 주요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여 투자 및 강조
파리	디지털에 주력하며, 문화 관련 각종 기관과 단체의 지원
베를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잡 산업을 추구, 의료산업의 중심지, 세계 3번째 광학, 음향학, 자동차(BMW, 다임러, VW) 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	IT산업,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이 대다수
도쿄	국제금융도시와 산업스마트화 지원 강조
상하이	국제금융/해운센터 건립을 통한 금융 강조와 온라인 산업을 통한 디지털 강조
싱가포르	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산업 성장, 녹색경제와 에너지정책 추진



04

해외 3대 도시 주요 산업정책 분석



- 1_ 뉴욕
- 2_ 런던
- 3_ 싱가포르
- 4_ 소결

04. 해외 3대 도시 주요 산업정책 분석

1_뉴욕

1) 뉴욕 산업 개요

- 뉴욕의 산업정책은 전통 산업부문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시
 - 뉴욕시가 OneNYC와 OneNYC2050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산업은 전통산업인 금융업과 패션업, 그리고 신흥산업인 테크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제조업 등
 - 2015년 발표한 OneNYC 계획에서 혁신산업(첨단제조업, 디자인업, 광고/미디어/예술산업, 전자상거래, 바이오산업, 테크/정보산업) 종사자 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종사자 수 비중은 2009년 14%, 2014년 15% 수준에서 2040년에는 20%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는 목표 설정⁶⁷⁾
 - 2019년에 발표한 OneNYC 2050에서도 금융업 위주였던 뉴욕 경제가 테크산업, 전문서비스업, 바이오산업, 첨단제조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강조

⁶⁷⁾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15, OneNYC: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New York City

2) 주요 산업정책

(1) 테크산업

① 산업 추진 배경과 정책의 방향성

- 뉴욕은 최근 들어 테크기업과 이와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는 추세
 - 현재 뉴욕에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의 사무실이 위치⁶⁸⁾
 - 테크기업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뉴욕 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도시 입지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이점이 풍부하기 때문⁶⁹⁾
 - 주요 대학이 다수 입지하여 고급 인력 충원이 쉬우며 사업에 필요한 전문서비스업 접근이 용이
 - 200개 이상의 엔젤 및 벤처캐피탈이 있으며 2017년에는 관련 자본금이 1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 금융업, 패션업, 미디어산업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중요한 뉴욕의 전통산업과 연계가 쉽다는 이점이 존재
 - 뉴욕 내 테크기업은 비영리조직 Tech:NYC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뉴욕시와 긴밀하게 소통
- 뉴욕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하여 일자리 및 기술 훈련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뉴욕 시민이 테크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또한, 뉴욕시 산하 기관 또는 추진 기타 사업과의 연계하여 관련 인력을 개발하는 사업을 다수 추진

② 세부 추진사업

- 뉴욕시에서는 2022년부터 Tech:NYC 소속 테크기업과 협력하여 학생 대상의 5주 교육 프로그램인 Tech Year NYC를 운영하여 테크 관련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⁷⁰⁾

⁶⁸⁾ <https://www.nytimes.com>

⁶⁹⁾ <https://edc.nyc/industry/emerging-tech>

⁷⁰⁾ <https://www.technyc.org/techyear>

-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CUNY 2X Tech' 이니셔티브는 2022년까지 테크 관련 학사학위를 지닌 졸업자 수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뉴욕시 주택국에서는 2017년부터 '#TECH51 프로그램'으로 IT 훈련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무료 IT 전문가 양성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⁷¹⁾
 - 2022년 5월까지 약 270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152명이 IT 관련 직업을 획득
- 뉴욕시 퀸즈 공립도서관에서는 '퀸즈브릿지 테크 랩(Queensbridge Tech Lab)'으로 디지털 워크숍과 메이커 도구 등을 시민에게 제공⁷²⁾

(2) 바이오산업

① 산업 추진 배경 및 경제산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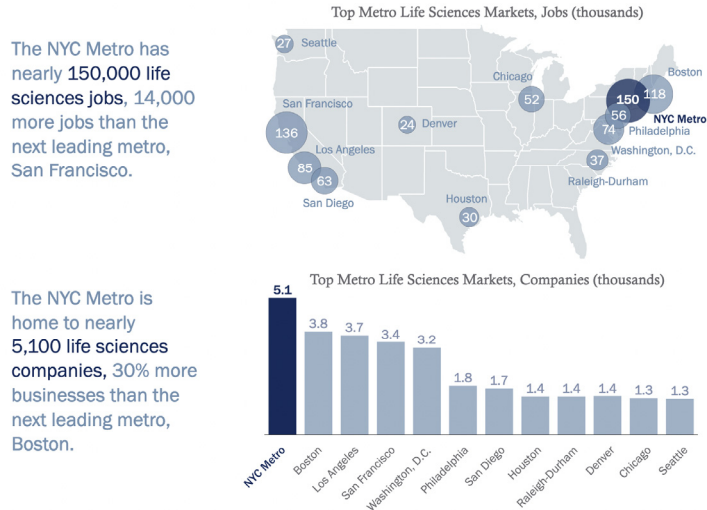
- 뉴욕 도시권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바이오산업 관련 일자리(약 15만 개)와 사업체(약 5천 개)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형성
 - 뉴욕에는 9개의 주요 학술 센터가 있으며 대학 기관에 7천 명 이상의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⁷³⁾
 - 2016년부터 2018년간 바이오산업의 벤처 자본 기금이 400% 증가하는 등 민간으로부터의 투자활동이 활발하고, 창업활동도 활발⁷⁴⁾
 - 뉴욕의 장기경제계획에서는 바이오산업과 테크산업이 뉴욕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판단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 지원

71) <http://nychanow.nyc/nycha-residents-thriving-in-it-careers-after-tech51-training/>

72) <https://www.queenslibrary.org/programs-activities/technology-training/queensbridge-tech-lab>

73) <https://edc.nyc/industry/life-sciences>

74) <https://edc.nyc/industry/life-sciences>



[그림 4-1] 뉴욕시의 생명과학산업 규모(2021년 3분기 기준)

자료: Life Sciences in the NYC Metro (NYC Planning, NYCEDC, 2022: 5)

② 정책 추진 방향성 및 전략

-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충분한 연구공간 확보와 기술혁신을 장려하 각종 보조금, 멘토링, 인력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추진⁷⁵⁾
 - 특히 뉴욕시는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실험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허브와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공간 조성
- 뉴욕의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관련 계획으로는 2016년에 발표된 5억 달러 규모의 LifeSci NYC 프로젝트 추진
 - LifeSci NYC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2백만 제곱피트(약 5만 6천 평) 상당의 생명과학 혁신공간 조성
 - 400명의 학생에게 관련 사업체에서 유급 인턴십을 제공했으며 6개 인큐베이터를 조성하여 매 2~3년마다 150개 스타트업 육성
- 빌 드 블라지오 시장(Bill de Blasio)은 2021년에 LifeSci NYC 프로젝트 투자금을 기존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⁷⁶⁾

⁷⁵⁾ Life Sciences in the NYC Metro (NYC Planning, NYCEDC, 2022)

- 뉴욕시는 추가 기금으로 2030년까지 상업 연구실 공간 및 인큐베이터 조성에 2억 달러, 비영리 시설의 연구개발에 3억 달러 투자
- 초기단계 기업 지원을 위한 '생명과학 확장 기금(Life Sciences Expansion Fund)' 확대를 위해 5백만 달러, 'LifeSci NYC 인턴십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5백만 달러를 각각 투자할 예정

1



[그림 4-2] 뉴욕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자료: LifeSci NYC: Leading the way in Life Sciences Innovation (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2021)

③ 세부 추진사업

- 뉴욕시는 LifeSci NYC 기금과 다양한 바이오산업 공간 조성
 - 바이오랩스(BioLabs): 뉴욕대학교 랑곤의료센터(Langone Medical Center)와 협업하여 5만 제곱피트(약 1,400평) 규모의 연구실과 사무실 조성
 - 이노랩스(InnoLabs): LifeSci NYC 기금과 뉴욕산업개발국의 지원으로

⁷⁶⁾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14-21/recovery-all-us-new-york-city-invests-1-billion-life-sciences>

민간개발업체에서 롱 아일랜드 시티에 26만 제곱피트(약 7,300평) 규모의 연구실과 사무실 조성⁷⁷⁾

- 바이오배트(BioBAT): 뉴욕시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주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기존 25만 제곱피터(약 7천 평) 규모의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Brooklyn Army Terminal)을 생명과학 연구공간으로 개보수
- CURE: 민간투자기관 디어필드 매니지먼트(Deerfield Management)와 파트너십을 맺고 맨해튼 플래티론 디스트릭트의 12층 건물을 생명과학 캠퍼스로 재개발하여 사무실 공간, 연구공간, 창업기업 지원공간 등 공급



바이오랩스

자료: <https://www.biolabs.io/nyulangone>



이노랩스

자료: <https://innolabslic.com>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자료: <https://www.biobat.nyc>



CURE

자료: <https://cure.345pas.com/gallery>

[그림 4-3] 뉴욕시의 바이오 관련 공간 조성 사업 사례

⁷⁷⁾ <https://rew-online.com/innolabs-life-science-building-welcomes-first-tenants/>

- 세금 감면 프로그램
 - 생명과학 세액공제 프로그램(Life Sciences Tax Credit Program):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제공⁷⁸⁾
 - 뉴욕산업개발국의 IDA Life Sciences Program: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와 디벨로퍼에게 부동산 세제감면, 모기지 등기세(mortgage recording tax) 감면, 판매세 면제 등 제공⁷⁹⁾
- 창업 관련 지원
 - ELabNYC: 뉴욕시가 개시한 6개월 프로그램으로 생명과학 및 보건 기술 부문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이공계와 의학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의사, 간호사, 연구자, 기술자 및 기타 과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 제공⁸⁰⁾
 - 뉴욕주 바이오디펜스 상업 기금(New York State Biodefense Commercialization Fund): 4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촉진
 - 2022년 4월에 1차 사업의 하나로 8개 스타트업과 10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총 1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과 창업활동, 제약개발과 상용화와 관련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⁸¹⁾
 - Digital Health Marketplace: 상용화 단계의 보건 기술 관련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⁸²⁾
 - NYC 초기단계 생명과학 펀딩 이니셔티브(NYC Early-Stage Life Sciences Funding Initiative): 뉴욕경제개발공사와 벤처자본 간 파트너십으로 창업기업에게 자금 제공⁸³⁾

78) <https://www.tax.ny.gov/pit/credits/life-sciences-research-and-development-tax-credit.htm>

79) <https://edc.nyc/program/ida-life-sciences-program>

80) <https://edc.nyc/program/bio-health-tech-entrepreneurship-lab-nyc>

81)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ore-15-million-awards-through-new-york-state-biodefense>

82) <https://edc.nyc/program/digital-health-marketplace>

83) <https://edc.nyc/program/nyc-early-stage-life-sciences-funding-initiative>

(3) 금융업

① 산업 추진 배경과 여건

-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뉴욕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주요 벤처자본의 본사, 벤처기업, 전자상거래 부문 등이 모두 밀집되어 클러스터 형성
- 금융업은 전통적으로 뉴욕의 주요 산업으로서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 기준으로 뉴욕시의 GDP 가운데 약 20%를 차지했으며 종사자 수 역시 약 8%가량 차지⁸⁴⁾
 - 뉴욕시 금융 및 은행업 종사자 수는 2021년 기준 약 32만 8천 명으로 2000년 36만 명 대비 소폭 감소⁸⁵⁾
- 최근에는 전통적인 금융업 부문에 더해 금융서비스와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⁸⁶⁾
 - 1,400개 이상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중에서 29개는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 뉴욕 핀테크 기업은 2021년에 360억 달러 이상의 벤처자본 투자액을 유치하고 628개 계약 성사
- 뉴욕 금융업은 높은 세금과 공간 비용,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재택근무 추세로 전환
 - 2021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는 5월에 뉴욕 맨해튼 록펠러센터 인근 사무실 두 개를 폐쇄하는 안 검토⁸⁷⁾
 -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등 대형 금융 회사는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로 본사를 옮기거나 근무 인력 증원⁸⁸⁾

84)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2015, At Risk: New York's Future as the World's Financial Capital

85) <https://statistics.labor.ny.gov/ins.asp>

86) <https://esd.ny.gov/industries/financial-services-and-insurance>

87) <https://www.wsj.com>

88) <https://nypost.com/2021/06/15/goldman-sachs-reportedly-plans-to-move-more-than-100-bankers-to-florida/>

② 정책 추진 방향성과 전략

- 뉴욕은 금융업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뉴욕의 입지적 강점 부각
 - 금융업은 철저히 민간영역에서 관리되는 부문으로 여겨지며 공공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감독과 규제 시행
- 주정부 차원에서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기술 요소를 접목해 테크산업과의 동반 성장 도모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보안 문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상품의 거래 활성화 목표
 - 사회공헌적 성격의 핀테크 기술은 추가적인 지원으로 금융업 발전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추진 중
 - 주정부는 금융업에서의 신기술 접목이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상화폐 자율화를 추진하는 뉴욕시장(에릭 애덤스, Eric Adams)과는 차이를 보이며 시행
-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을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발표⁸⁹⁾
 - 첫 석 달 임금을 가상화폐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2022년 1월에 첫 월급을 가상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령
- 한편 뉴욕은 공공 주도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으며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장려를 위해 시장 안착을 위한 멘토링 및 민간 자본과의 접촉 기회 마련

(4) 세부 추진사업

-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2015년부터 미국 최초로 종합 가상화폐 규제 제도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상화폐의 품질과 안전 관리⁹⁰⁾

⁸⁹⁾ <https://www.nytimes.com>

- 금융서비스부는 2020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이 신규 화폐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2020년 6월에는 라이선스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은 화폐를 승인받는 대신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 금융서비스부는 비트라이선스 소지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자기신고로 디지털 코인이 뉴욕주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행
- 금융서비스부는 2019년 사이버보안부서(Cybersecurity Division), 연구혁신부서(Research and Innovation Division) 신설
- 주정부는 2020년 6월에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핀테크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DSF 패스트포워드(DSF FastForward)' 프로그램 신설⁹¹⁾
 - DSF 패스트포워드는 2020년 2월에 개시된 시범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화이트홀(Project Whitehall)'에 기초
 - 금융서비스업 및 핀테크 부문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DSF 규제 적용에 대한 정보와 자문 제공
 - 해당 프로그램은 소기업체 지원, 가구 금융 안정성 개선 등 코로나 경제회복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주로 집중할 예정
- 뉴욕연방준비은행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novation Lab)과 제휴하여 '뉴욕혁신센터(New York Innovation Lab)' 설립(2020)⁹²⁾
 - 뉴욕혁신센터는 중앙은행에게 중요한 금융기술 트렌트를 연구하여 금융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감독 및 규제 기술, 금융 시장 인프라, 화폐의 미래, 오픈 파이낸스, 기후 위험 등 다섯 개 분야에 집중
 - 국제결제은행은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런던, 스톡홀름 등에도 혁신 허

⁹⁰⁾ <https://www.dfs.ny.gov>

⁹¹⁾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006091

⁹²⁾ <https://www.newyorkfed.org/newsevents/news/aboutthefed/2021/20211129>

브 조성⁹³⁾

- ‘스타트업부트캠프 핀테크(Startupbootcamp Fintech)’는 금융서비스업 부문에서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⁹⁴⁾
 - 스타트업부트캠프는 유럽의 기업가 네트워크가 2010년에 코펜하겐에서 설립한 조직으로 창업가 지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
 - 스타트업부트캠프 핀테크 프로그램은 뉴욕 내 10개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가 멘토링, 사무실 공간, 시드 기금, 생활비, 그리고 투자자 및 기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스타트업부트캠프는 한국에서도 중소기업벤처부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핀테크 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뉴욕, 두바이, 멜버른, 멕시코시티 등에서 시행
- 뉴욕시 주요기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가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Fintech Innovation Lab)’ 설립
 - 단체가 조성한 ‘파트너십 펀드 포 뉴욕시티(Partnership Fund for New York City)’는 2010년에 글로벌 전문서비스기업 액센츄어(Accenture)와 함께 초기 단계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제작
 - 핀테크 기업은 12주 프로그램 동안 제품 및 시장적합도에 대한 피드백,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 및 피칭 기회 등 제공
 - 현재까지 일자리 2천 개 이상을 창출하고 약 22억 달러 상당의 자본 유치

⁹³⁾ <https://forkast.news/headlines/new-york-fed-bis-launch-fintech-hub/>

⁹⁴⁾ <https://www.startupbootcamp.org/accelerator/fintech-new-york/>

2_런던

1)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산업⁹⁵⁾

- 런던시는 현 사디크 칸(Sadiq Kahn) 런던 시장이 세운 장기 경제산업정책에 의거 분야별 산업 육성책 시행
 - 이러한 런던의 정책으로 금융, 디지털,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관광산업은 세계적 수준 유지

[표 4-1] 런던의 세계 경쟁력 순위⁹⁶⁾

산업 분야	순위
세계 금융 센터 인덱스	2
Nesta's 유럽 디지털 시티 인덱스	1
ARCADIS 2018 지속가능한 도심교통 인덱스	1
마스터카드 여행 도시 인덱스에 따른 2017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2

(1) 배경 및 현황

- 런던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금융서비스 수출 도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경쟁력 유지
 - Barclays, HSBC, Santander 등 세계적 금융 기업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Deloitte, PWC, Ernest & Young, KPMG이 런던에 본사가 위치
 - 수많은 금융기관이 런던 도심에 위치하여 집적효과가 발생⁹⁷⁾
- Brexit 영향으로 44%의 금융 기업이 영국 내 지점이나 직원을 EU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금융산업 위축이 예상
 - Brexit 이후 대 EU 거래에 있어 영국은 금융 분야에 있어 연간 20억 파운드 손실 예상. 금융 무역에 있어 금융비용 증가 예상

⁹⁵⁾ GLA website. Supporting Financial and Business Services

⁹⁶⁾ GLA, 2020b, The Evidence Base for London's Local Industrial Strategy - Final report

⁹⁷⁾ Laura Davison, 2017 UK Financial Services - Clustering and Concentration of Firms and Jobs

- 소액대출, 극초기단계 벤처 캐피털, 장기 특히 자금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투자가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 가중

(2) 세부 추진사업

- 런던 시장의 방안은 경쟁적 사업 환경 유지,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 충분한 사무실 확보, 런던의 저력을 세계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는 등 최고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 회사와 금융 시장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기존 금융감독청의 업무를 자문 규제청과 금융활동 규제청으로 나누어 업무권한 부여
- 금융산업의 세제 지원책으로서 금융산업 세율 개정안 도입
 - 은행 또는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수익의 8%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이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
 - 금융산업 세율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부터 25%로 법인세율 증가하고 2천 5백만~1억 파운드 규모의 은행은 추가 세금 세율이 3%로 감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그룹 지원
 - 정부가 기금 및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므로 금융사와 상생관계 유지
- 세부 추진사업으로 녹색 금융(Green Finance) 도입
 - 영국은 세계 녹색금융 인덱스(GGFI: Global Green Finance Index) 1위 국가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도적으로 추진
 - 친환경 회사 투자, 친환경 프로젝트 대출, 벤처캐피털 등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력적인 미래를 위해 자본이 활용되도록 유도
 -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의 지속가능한 포장 프로젝트: 그레이터 맨체스터 기업이 녹색 금융 투자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2025년까지 재활용, 재사용, 자연분해 가능한 포장재로 대체 하도록 개발 중
 - 선덜랜드(Sunderland) 페타이어를 연료, 고철, 재생카본블랙으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공장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친환경 금융 제안 건이 현재 심사 중

- 런던의 소상공인을 위한 펀드로, 런던 투자 펀드(Greater London Investment Fund), 런던 공동투자 펀드(London Co-Investment Fund), CAN 초기 개입 펀드(CAN Early Intervention Fund) 등 금융 기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2) 친환경 산업

(1) 배경 및 현황

- 런던이 직면한 중대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
 - 현재 런던의 저탄소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경제규모는 약 400억 파운드, 250,000개의 일자리 제공(건설, 생산 합산보다 큰 규모)한 것으로 파악
 - 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친환경 경제규모 90% 일자리 58% 상승
 - 탄소배출의 2/3이 건축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건축물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 장기 환경 목표로는 '2030년 탄소배출, 오염물 배출 0' 과 '2050년 쓰레기 배출 0' 추진
 -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경제회복과 환경문제 대응을 동시에 이행
 - 정책 시행을 위해 그린뉴딜 기금(Green New Deal Fund) 집행
 - 그린뉴딜의 현실적 의미: ① 탄소배출 제로, ② 대중교통 개선, ③ 기후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녹지대 확대, ④ 경제, 산업, 정책적 기반 마련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건축물 개선책으로 에너지 효율 기금(Energy Efficiency Fund) 5억 파운드 투자로 에너지 효율, 분산된 에너지 생산, 전기차 충전소,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지원
- 런던 녹화 기금(Rewild London Fund)이나 녹색 회복 공간 기금(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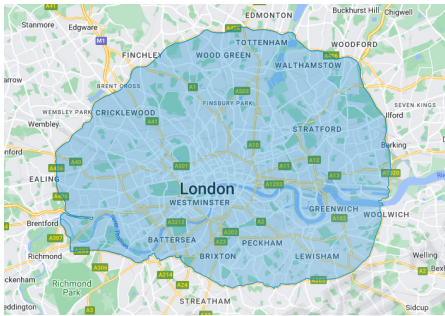
and Resilient Spaces Fund) 등 각종 기금을 조성하여 기존 건축물의 친환경적으로 개선



Zenobe Energy Project
전기버스, 전기 충전소



Southwark 구 WSHP 지역난방



런던 내 ULEZ 구역⁹⁸⁾



런던 내 식수사업⁹⁹⁾

[그림 4-4] 친환경 산업 사례

(2) 그린뉴딜 펀드

- 현재 런던시는 그린뉴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린뉴딜 펀드의 지원 내용을 1단계로 발표¹⁰⁰⁾
 - 현재 발표된 그린뉴딜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과 신규 사업을 종합하여 탄소 제로 도시 구축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을 지속 추가
 - 런던을 제로 카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런던시는

98) The ULEZ Map (<https://ulez.co.uk/ulez-map/>)

99) <https://www.london.gov.uk>

100) <https://www.london.gov.uk>

- 2030년까지 녹색경제의 규모를 150조 원(1천억 파운드) 규모로 육성
 - 1단계 펀드로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
 - 이 과정에서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소수인종과 여성의 창업 지원, 임금 개선 등의 부가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
- 펀드는 건설 분야의 탄소 절감, 녹색 교통과 공공환경, 녹색경제 기반 세 분야로 나누어 추진
 - 건설 분야 탄소절감은 지역난방, 런던 지역사회 에너지펀드, 산업단지 태양열 집열판 설치 지원, 가정의 태양열 집열판 설치 지원
 - 녹색 교통과 공공환경은 전기버스 도입과 충전소 설치, 2030 미래지구 (2030 Future Neighbourhoods) 조성
 - 녹색경제 기반은 “Advance London” 사업과 “Better Futures” 사업으로 분류
 - Advance London 사업은 런던의 폐기물 및 재활용 위원회가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5년간 순환적 경제를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
 - Better Futures사업은 클린테크 분야 등 혁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경영 지원 및 금융지원을 제공

(3) 이머징 기술산업(Emerging Technologies)

- 런던은 전통적으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금융기업이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발상지가 됨
 - 2021년 런던 핀테크 분야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38억 파운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¹⁰¹⁾
- AI 분야에서 총 758개의 기업이 있으며 이 중 645업체의 본사가 런던에 위치
 - AI 분야 세계 최고의 DeepMind 사의 본사가 런던에 위치하며, 세계적 AI 산업 성장률 24%에 비해 런던의 AI 산업 성장률은 연간 42%에

¹⁰¹⁾ Gina Clarke(2021)

육박. 업계 투자금액은 2017년 2억 파운드를 상회¹⁰²⁾

- 이머징 기술산업 관련 정책으로, 런던을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머징 기술산업 헌장(An Emerging Technology Charter for London)¹⁰³⁾ 발표¹⁰⁴⁾
 -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런던 기술 주간(London Tech Week)¹⁰⁵⁾에 발표
 - 헌장은 공공 서비스 및 런던 내 공공 영역에 적용되는 스마트 도시 기술로 불리는 데이터 기반 기술의 빠른 성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도덕적 기준 제시
 - 새로운 기술 영역은 센서, 카메라, 드론, 로봇, 이동장치, 안면인식, 자율주행, 증강 및 가상현실, 자동 혹은 알고리즘 의사결정 등
- 향후 10년간 스마트 도시 이머징 기술의 빠른 상용화 및 대중화 기대
 - 세금감면이나, 중소기업 연구개발기업 감면(SME R&D relief) 등 지원¹⁰⁶⁾
 - 런던 시의 디지털 지능 프로그램(Digital talent programme)으로 젊은이에게 디지털 기술교육 및 현장 업무 지원. 신설된 디지털 실습 프로젝트(Digital Work Placement project)에 196천 파운드 투자¹⁰⁷⁾
 - 신생 기업을 위한 다양한 벤처캐피털 투자 지원책으로 신생기업 투자 계획(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기업 투자 계획(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벤처 캐피털 신탁(Venture Capital Trusts: VCTs) ¹⁰⁸⁾ 등이 있음
 - 세부추진사업의 하나로 런던 기술 주간(London Tech Week) 개최¹⁰⁹⁾ 하며, London & Partners를 통하여 2014년부터 매년 개최

102) GLA website(2018)

103) GLA website (2021) An Emerging Technology Charter for London

104) Georgina Maratheftis (2021) Emerging Technology Charter for London launched

105) London Tech Week website (<https://londontechweek.com/>)

106) <https://www.gov.uk/>, Guidance: Claim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s

107) GLA 2020a DD2448 Mayor's Digital Talent Programme budget reallocation

108)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website (2022) Policy paper: UK Digital Strategy

109) London & Partners website. London Tech Week

-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책, 학문, 연구, 산업, 투자자본이 한 곳에 모여 교류, 취업, 배움, 사업 기회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분야 주요 이벤트를 마련



[그림 4-5] 런던 기술주간 포스터

3_싱가포르

1)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1) 스마트네이션 추진 배경과 특징¹¹⁰⁾

- 싱가포르는 4차 혁명에 대응하고자 스마트네이션과 핀테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
 -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부터 IC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
 - 1980년대 초반에는 국가정보화 계획(National Computerisation Plan)으로 정부시스템의 전산화와 IT관련 인력양성을 추진
 - 그 이후에는 국가 IT 계획 (Nation IT Plan)으로 민간 부문까지 전자

¹¹⁰⁾ Smart Nation Singapore(2022)

화 사업 확대

- 2000년대에 들어서 싱가포르는 2005년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Intelligent Nation 2015(iN2015)’이라는 10년 개발 계획 수립
 - 이를 근간으로 2014년 11월 ICT를 활용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추진
 -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삶의 질, 기업 경쟁력과 체제를 개선하고 싱가포르 ICT 시장에 투자 활성화 추진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네이션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구조 개편(2017년 5월)
 - 총리실 산하에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 그룹(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 구성
 - 하부 조직으로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 오피스(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와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을 설치하여 디지털 혁신 주도
- 스마트네이션은 세 가지의 요소(digital economy, digital government, digital society)와 9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스마트네이션의 최종목표로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범국가적인 로드맵 설정
 - 이를 위해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 지불·결제, 헬스케어,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로 비전 달성

[표 4-2] 스마트네이션 3가지 구성요소와 세부 항목

구성요소	세부 항목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및 분석 (Big Data and Analytics)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 인지컴퓨팅 및 첨단 로봇 (Cognitive Computing and Advanced Robotics)
디지털 정부 (Digital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통신 및 협업 기술 (Futur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echnologies) •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 실감미디어 (Immersive Media)
디지털 사회 (Digital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 및 향상된 연결성 (Mobility and Increased Connectivity) • 플랫폼 프리 미디어 콘텐츠 (Media Content Breaks From Platforms) • 인포컴-미디어 컨버전스 (Infocomm Media Convergence)

(2) 스마트네이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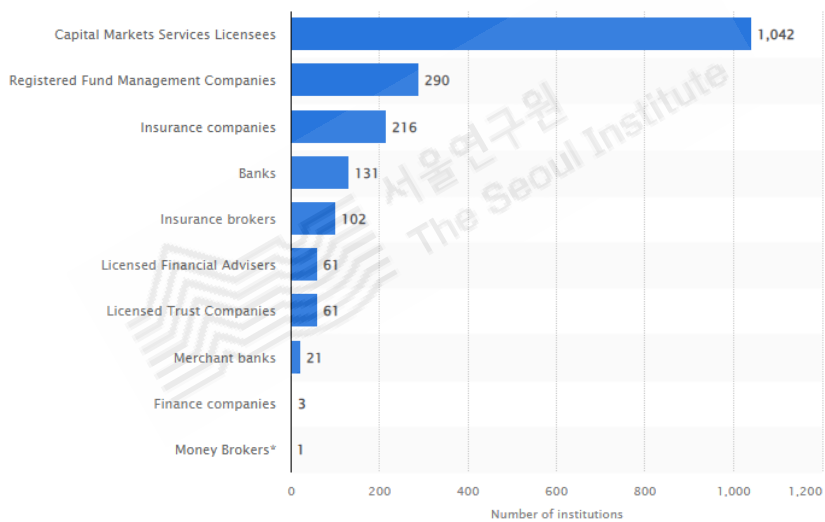
- 스마트네이션으로 본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 장기간의 ICT 관련 정책을 토대로 미래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정부주도(top-down) 형식으로 추진
 - 총리실이 직접 4차 산업혁명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조직 설립과 운영, 예산 수립, 세부 사업 등을 모두 관장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ICT와 금융 산업의 발달을 토대로 다양한 테스트베드를 싱가포르에 직접 설치하여 스마트네이션 추진을 위한 여러 기술 등을 테스트
 - 단적인 예로 싱가포르는 Jurong Lake District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를 법적으로 허용
 - 스마트네이션 달성을 위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교통, 주거, 보건, 환경, 산업 등)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참여를 독려
 - R&D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
 -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하고자 하며, 대표적으로 SkillsFutur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¹¹⁾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목적으로 스마트네이션의 핵심동력 중 하나인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교육 학습을 강화

2) 금융산업과 핀테크

(1) 싱가포르 금융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성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로, 2022년 현재 세계 유수의 대형 금융사를 포함해 1,000개 이상의 금융 관련 기업이 진출
 - 싱가포르의 주요 금융서비스산업으로는 은행업(투자은행, 자산관리·자산 운용산업), 보험업, 자본 시장(증권업, 선물·파생상품 관련) 서비스업 등¹¹²⁾



[그림 4-6] 2022년 싱가포르 금융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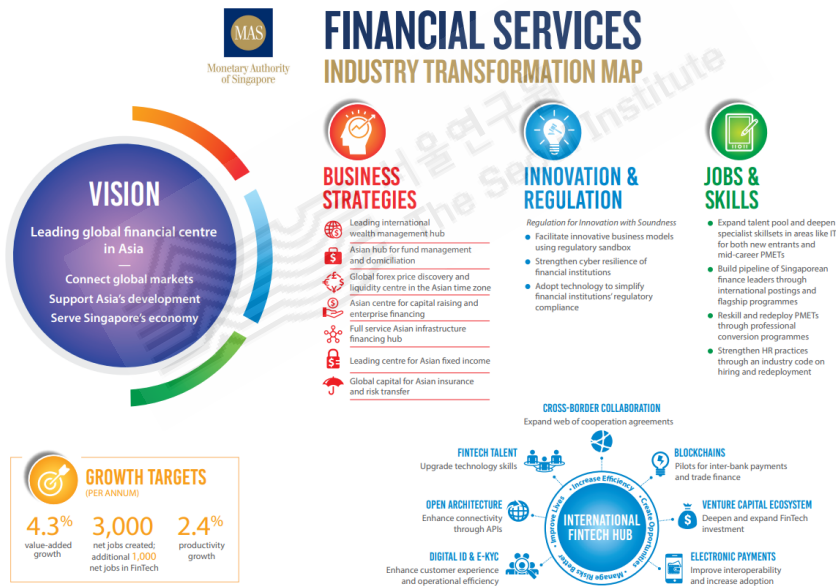
자료: <https://www.statista.com>

- 2018년 기준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총자산은 증가하고, Merchant Bank를 제외한 다른 금융사는 양적으로도 증가

111) SkillsFuture Singapore(2022)

112) Statista(2022)

-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resilience)도 높은 것으로 평가¹¹³⁾
- 싱가포르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량이 6,330억 미국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4월 기준 5,170억 미국 달러로 22% 상승¹¹⁴⁾
 -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는 전 세계 최대 외환거래소 중 세 번째로 큰 거래소로 평가되고, 전 세계 외환거래량의 약 7.6%를 담당
- 2021년 기준 핀테크 투자는 39억 미국달러 금융서비스와 핀테크 부문에 4,300개의 추가 직업(net jobs) 생성¹¹⁵⁾
-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금융정책 방향은 통화청에서 발표한 금융서비스산업 변화 지도 (Financial services industry transformation map)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¹¹⁶⁾



[그림 4-7] 금융서비스산업 변화 지도

1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9)
 11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19)
 11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22)
 11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22)

- 금융서비스산업 변화 지도의 비전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센터로 글로벌시장과 연결, 아시아 시장 발전 지원, 싱가포르의 경제 부흥 도모
 - 성장 목표로서 부가가치 4.3% 증가, 생산성 2.4% 증가, 순일자리 생성과 핀테크 산업 순일자리 창출
- 비즈니스 전략으로 선도적인 국제 자산관리 허브, 자금 관리 및 정착을 위한 아시아 허브, 아시아 시간대의 글로벌 외환 가격 설정 및 유동성 센터 마련
 - 선도적인 국제 자산관리 허브: 싱가포르를 자산관리 기술 및 혁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인재 풀을 심화하여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자산 자문 솔루션 제공
 - 자금 관리 및 정착을 위한 아시아 허브: 외부 펀드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자산관리 역량 확보
 -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y 프레임워크로 싱가포르를 지역 펀드 거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
 - 아시아 시간대의 글로벌 외환 가격 설정 및 유동성 센터 구축
 - 주요 FX 플레이어의 매칭 및 가격 책정 센터를 싱가포르에 유치하도록 장려하여 FX거래 실행에 유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

① 중점 추진 분야

- 자본 조달 및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아시아 센터: 아시아 기업이 더 넓은 투자자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하도록 민간 시장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 싱가포르 금융 생태계는 다자간 개발 은행과 협력하여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
 - 혁신적인 시장 메커니즘과 인프라 투자 벤치마크로 민간 자본을 집중하는 차별화된 전략 시행
- 아시아 채권의 선두주자로서, 아시아 채권(Asian Bond)와 녹색 채권 보조금 제도 (Green Bond Grant Schemes)의 출범과 함께 역외 부채 금융에 대한 아시아 기업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시아 보험과 위험 이전을 위한 글로벌 자본 환경을 구축: 더 효율적인 위험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앙 집중식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보험 시장을 변화시키고 전문 보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협력

② 혁신 및 기술

- 금융 부문의 전반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채택 장려
 -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금융기관 간 연결성 및 핀테크 혁신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 강화
 -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전자 지불, 디지털 ID 및 전자 고객 알기 체크 (electronic know-your-client check)와 같은 공통 유틸리티 구축
 - 은행 간 지불 및 무역 금융을 위한 분산 원장 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사용 등 새로운 솔루션 개발 R&D 촉진과 투자
 - 다른 주요 핀테크 센터와 국경을 초월한 협력으로 싱가포르를 외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기지로 성장시킬 계획
- 싱가포르는 혁신과 기술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기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접근 방식을 계속 강화
 - 주요 우선순위에는 규제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도록 하 고 금융기관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포함

③ 직업과 기술

- 세계적 수준의 금융 부문 기술을 구축하고 핵심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3자 파트너 및 고등 교육 기관과 계속 협력할 계획
 - 정보 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로 구성된 강력한 현지 파이프라인 구축
 - 전문적인 전환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직업 성장 영역으로 재교육과 인력을 재배치, 강화된 직업 자문 서비스를 통해 취업 알선을 추진

(2) 싱가포르 핀테크

① 핀테크 현황

- 싱가포르 금융산업의 전반적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핀테크 산업부문은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추진 계획과 더불어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 성장 정책 중에 하나임
 - 금융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
- 싱가포르의 핀테크 산업은 중앙은행과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주도로 기본적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고 디지털 금융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함
 - 2021년 핀덱서블 (Findexable)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랭킹에서 10위를 차지¹¹⁷⁾
-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은 2006년도 정보화 국가 (iN2015)에서 8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핀테크 산업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
 - 정보화 국가(iN2015)에서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¹¹⁸⁾

[표 4-3] 금융서비스산업 세부 항목

구분	내용		
목표	- 정보화 기반 금융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허브 및 신흥 아시아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관문		
결과	- 정보화를 통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 정보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우수성 향상		
추진 전략	- 아시아에서 금융산업 진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관문으로서의 싱가포르 역할 개발	- 싱가포르를 금융서비스 분야의 정보 혁신센터로 육성	- 차세대 전자결제 인프라를 통한 상업 활성화
세부 전략	-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위치로 싱가포르의 명성	-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금융서비스산업 전반에	- 혁신적인 결제 솔루션 배포 추진

117) Findexable(2022)

118)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2006)

구분	내용		
	구축 - 품질 및 비용 경쟁력이 있는 통신 인프라 및 연결성 보장 - 정보통신 및 금융 분야의 학제 간 기술을 갖춘 고품질 인력 구축 - 싱가포르의 고급 금융서비스 유치 및 정착 - 새로운 금융 상품을 위한 지역 시장 창출	걸쳐 혁신 의제 추진 - 금융서비스산업 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산업의 역량 개발	-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주도

자료: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2006), Innovation, Integration, Internationalisation - Report by the iN2015 Steering Committee,

- 싱가포르는 2014년 스마트네이션의 하나로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 (Singapore Fintech Association)과 핀테크 사무소 (Fintech Office)를 설립하여 핀테크 지원 강화¹¹⁹⁾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15년 금융 부문 기술 및 혁신 계획(Financial Sector Technology and Innovation Scheme)으로 인프라 및 관련 연구소 설립을 위해 5년간 2억 2,500만 싱가포르달러를 약속
- 디지털 은행 설립을 여러 회사가 준비 중
 - 대표적으로 Grab-Singtel consortium, SeaMoney, Ant Group, Greenland Financial Holdings-led consortium이 2022년내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
 - 싱가포르 핀테크의 발전은 벤처캐피털(VC)의 관심도 상당하며, 2020년 상반기에 싱가포르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4억 6,200만 미국 달러¹²⁰⁾

¹¹⁹⁾ Government of Canada(2022)

Singapore Fintech Map 2022



[그림 4-8] 2022년 싱가포르 핀테크 맵

자료: <https://fintechnews.sg/57639/fintech/singapore-fintech-report-2022/>

② 싱가포르의 핀테크 발전 계획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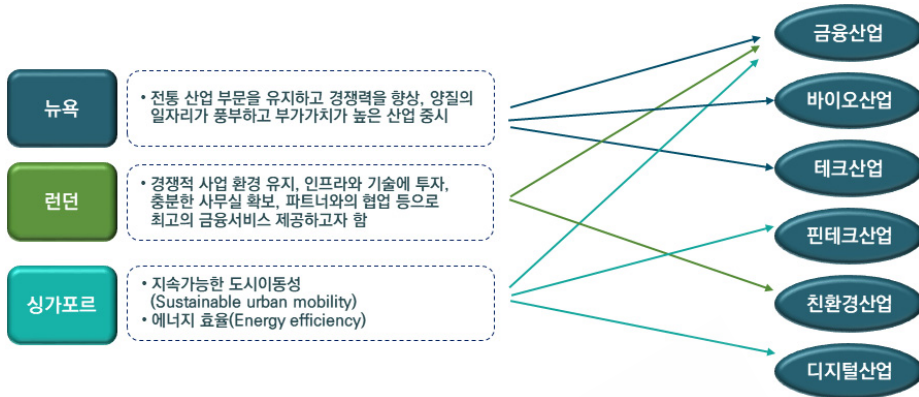
-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을 만들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 마련
 - 아시아 핀테크 허브라는 확실한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주도의 육성 프로젝트(예: 프로젝트 우빈121)를 추진
 - 핀테크 오피스 (Fintech Office)라는 범부처 기구로 기존 규제의 개선 보다는 자금 투입 및 조직 지원(예: 2016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여 시장 활성화에 초점

4_소결

- 이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벤치마킹 가능한 뉴욕, 런던,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을 분석

12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20)

- 3대 핵심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과 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
- 중점적인 정책과 산업에는 금융산업·핀테크, 바이오산업, 테크산업, 친환경산업, 디지털산업이 대표적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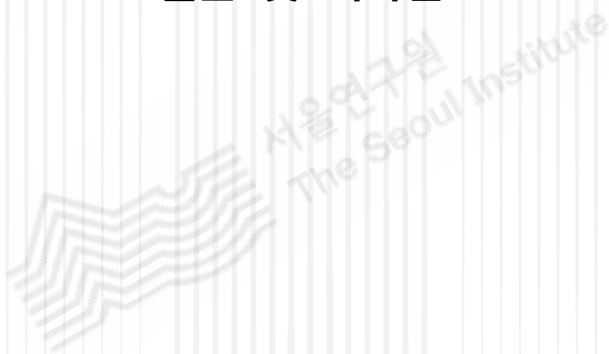


[그림 4-9] 3대 핵심도시 주요 산업의 정책 방향성

- 금융산업은 관련된 기관, 기업체, 인력 등이 집적할수록 성장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가 탁월
 -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도시는 세계적인 금융업계 본사와 지사, 연구소, 대학 등 금융 인프라가 집적된 환경으로 도시 그 자체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도시의 금융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으로,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영역에서는 자율경쟁형식으로 성장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테크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 정책과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의 경제 성장 견인
 -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고급 인재 양성 및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스타트업 육성 등의 실질적인 사업 진행
-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그린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경제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결합하여 성장
 -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산업 육성, 그린 펀드를 조성하며,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 추진

05

결론 및 시사점



- 1_ 결론
- 2_ 시사점

05. 결론과 시사점

1_결론

- 거시경제지표 분석으로 해외 주요 도시 8곳의 지난 20년간 경제는 평균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며, 성장 폭은 도시별로 상이
 - 각 도시의 GDP 변화 추이에서는 세계적으로 평균 성장률은 3.98%이나, 상하이가 11.1%로 가장 크게 성장
 - 도시별 물가수준은 평균 1.4%이며, 대부분의 도시는 안정적이거나, 상하이와 도쿄가 각각 -0.02%, -0.01%인 마이너스 물가 기록
 - 고용 상황의 지표로서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도시는 고용 개선 없이 높은 실업률 유지
 - 환율변화를 살펴보면, 대외경제 여건은 안정적으로 유지
- 코로나19 발생으로 도시의 경제 성장세는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며 단기간에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
 - GDP 평균 성장률은 4.6%에서 -2.6%로 크게 하락하고, 평균 소비자 물가는 1.1%에서 0.7%로 1%대 이하 기록
 - 코로나19 전후의 평균 실업률은 4.2%에서 6.4%로 2.2%p로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뉴욕은 12.5%를 기록하며 고용 상황 악화
 - 코로나19 전후 평균 환율은 1.6%에서 0.01%로 변동폭이 안정적으로 전환
- 코로나19 발생과 팬데믹 선언 이후에 해외 주요도시는 경제회복을 위해 일부 도시의 정책은 개별 위기관리와 단기 전략 마련

- 사회적으로 빈곤층, 이주민, 여성, 노인에 대한 불평등 심화되었으며, 이동성보다 접근성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
- 도시 전략의 방향은 도시, 환경, 관광, 문화, 산업 등의 회복 강조
- 뉴노멀 시대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화, 친환경, 이동패턴 변화, 도시 프리미엄,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
- 해외 주요 도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략과 계획을 발표하며, 세부 사업을 추진
 - 계획의 방향성은 포용적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성장, 녹색성장, 스마트 성장 등 추진
 - 계획의 성격은 종합기본계획과 장기경제계획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도시별로 집행체계는 상이
 - 계획의 주요 목적은 불평등 해소, 경제 성장 지속, 기후 문제 대처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
- 해외 주요 도시 8곳은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금융산업, 그린산업에 주목하며 선택과 집중의 정책과 사업 추진
 - 중점적인 정책과 산업에는 금융산업·핀테크, 바이오산업, 테크산업, 친환경산업, 디지털산업이 대표적 산업
 -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은 금융산업 관련 기관, 기업체, 인력 등이 집적하고 있어 성장 시너지 효과가 탁월하며,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경쟁 형식으로 성장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테크산업이 주목 받으며, R&D 투자, 고급 인재 양성 및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스타트업 육성 등의 실질적인 사업 진행
 -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수단으로 환경과 금융산업이 결합하여,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산업 육성, 그린 펀드 조성 추진

2_시사점

- 경제정책에서는 정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종합경제(산업) 정책 수립(서울비전 2020, 2030) 필요
 - 국제 정세변화와 감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 가능한 서울시 경제정책 방향과 산업정책 방향 설정
 - 주요 해외 대도시 핵심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사례를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단위의 통계자료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도 병행
 -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적 교류와 전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체계 강화
- 산업정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블록체인 등)이 있는 테크산업과 응용산업(FinTech) 간의 동반 성장 추진 필요
 - 그린산업, 친환경 산업의 정책목표 설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스타트업 집적지와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민-산-학-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급 인력 유치
 - 재원 마련을 위해 녹색경제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NY 바이오데팬스 상업 기금, 런던 투자 펀드) 조성
 - 클러스터 테크허브 형성으로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개발 환경조성

부록 1.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도시의 정책 방향

해외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략	세부 전략	도시	정책 내용	
			요약	원문
1. 포용적 전략 (Inclusive recovery)	1) 지역 사업체 지원과 고용 (Local business support and employment)	파리	지역 내 중소기업인 고용	9 out of 10 service providers of the city will be SMEs (OECD, 2020, p.26)
			세금 혜택	supporting local business and economic recovery, including through tax incentives (UN, 2020, p.25)
		샌프란시스코	중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및 사업 지원	jobs and business support; vulnerable populations; economic development (OECD, 2020, p.25)
			추가 유급 병가 지원	additional paid sick leave (UN, 2020, p.25)
		도쿄	중소상공인 시설, 장비 및 투자 지원 복구 로드맵	recovery roadmap including guidelines for businesses to prevent the spread of viruses, accompanied by subsid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o invest in appropriate facilities and equipment (OECD, 2020, p.26)
			지역 호텔 지원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사람과 매칭 서비스)	program matching hotels providing teleworking facilities with employees who can not telework at home (OECD, 2020, p.26)
			중소기업의 급여세 할인, 소액 신용 및 신흥 신용	discounts in payroll tax in medium size companies, micro-credits and emerging credits for individuals and SMEs (UN, 2020, p.25)
뉴욕	중소기업의 급여세 할인, 소액 신용 및 신흥 신용	discounts in payroll tax in medium size companies, micro-credits and emerging credits for individuals and SMEs (UN,		

전략	세부 전략	도시	정책 내용	
			요약	원문
				2020, p.25)
			조건부로 무이자 대출 지원	including zero-interest loans repayable over 15 to 20 years for firms with under 100 employees, for loans up to USD 75,000, conditional on demonstrating a 25% decrease in customer receipts (OECD, 2020, p.49)
			임대료 지불 연기	postponing rental payments (OECD, 2020, p.58)
		바르셀로나	자금, 역량 구축, 홍보 등을 위한 법적 지원	measurements for grants and funding, capacity building, promotion and communication, economic instruments and adapting the existing legislation (OECD, 2020, p.24)
		마드리드	세금감면	tax breaks (UN, 2020, p.25)
		멕시코시티	기업을 위한 재정 혜택	financial incentives to companies (UN, 2020, p.25)
			중소기업의 급여세 할인, 소액 신용 및 신흥 신용	discounts in payroll tax in medium size companies, micro-credits and emerging credits for individuals and SMEs (UN, 2020, p.25)
	2) 저렴한 주택 건설·개조 (Affordable housing construction and renovation)	바르셀로나	비상 주택 제공 (노숙자에게 빈집 제공)	made emergency housing available to those without homes, with Valencia and Barcelona partnering with the private sector to mobilize vacant housing units (UN, 2020, p.12)
	3) 취약계층 지원 (Support to vulnerable populations)	파리	임대료 지불 연기	Postponement of rental payments (UN, 2020, p.14)
			임시 쉼터 제공 (가정 폭력 피해자, 노숙자 및 취약집단 위함)	temporary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emporary shelter for homeless and fragile groups (UN, 2020, p.14)
		런던	임시 쉼터 제공 (노숙자·취약집단)	temporary shelter for homeless and fragile groups (UN, 2020, p.14)
		샌프란시스코	주택 퇴거 유예	temporary moratorium on housing evictions during the crisis (UN, 2020, p.14)
			임대료 지불 연기	postponement of rental payments (UN,

전략	세부 전략	도시	정책 내용	
			요약	원문
				2020, p.14)
		뉴욕	주택 퇴거 유예	temporary moratorium on housing evictions during the crisis (UN, 2020, p.14)
			임시 쉼터 제공 (노숙자 및 취약집단 위험)	temporary shelter for homeless and fragile groups (UN, 2020, p.14)
			식량 체계 재활성화, 지역 상품 지원 및 분배 조치 (취약계층 위험)	measures to reactivate food system and support lo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clude: access to food in poor neighborhoods (UN, 2020, p.25)
			무료 식사 제공	free meal dispensation (UN, 2020, p.25)
			숙소 제공	6,000 individuals would be relocated to hotel rooms (OECD, 2020, p.54)
			주택 퇴거 유예	temporary moratorium on housing evictions during the crisis (UN, 2020, p.14)
			임시 쉼터 제공 (노숙자·취약집단)	temporary shelter for homeless and fragile groups (UN, 2020, p.14)
			토론토	임시 쉼터 제공 (노숙자 및 취약집단 위험)
		무료 인터넷 사용 제공		provide free temporary internet access for low-income neighbourhoods, long-term care homes and shelters (OECD, 2020, p.13)
		멕시코시티	물 제공 (기본 서비스 제공)	Measures implemented to enhance access to and delivery of basic services – Water provision in deprived neighborhoods (UN, 2020, p.14)
2. 녹색전략 (Green recovery)	1)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성 (Sustainable urban mobility)	파리	자전거도로 확장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kilometres (30 miles) of lanes normally used by cars will be reserved for bicycles (OECD, 2020, p.30) - create new bike lanes or widening existing ones (UN, 2020, p.25)
			학교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30 streets will be designated pedestrian-only, in particular around schools, to avoid large groups of people gathering on sidewalks (OECD, 2020, p.30)

전략	세부 전략	도시	정책 내용	
			요약	원문
			특정 차량 운행 허용	Only some vehicles are authorised to circulate on the Rue de Rivoli street such as buses, cabs and delivery trucks, or even emergency vehicles and those for disabled people (OECD, 2020, p.30)
			'15분 도시' (도보/자전거 이용한 근거리 이동으로 서비스 이용)	'15-minute city' in which every resident can meet their essential needs within a short walk or bike ride from their home (UN, 2020, p.28)
		런던	전기 자전거 권장	offering health workers temporary free access to electric bikes (UN, 2020, p.25)
		베를린	자전거도로 확장 및 신설	cities are creating new bike lanes or widening existing ones (UN, 2020, p.25)
		뉴욕	임시 자동차 도로 폐쇄 및 자전거 도로로의 이용	introducing short-term street closures and temporary bike lanes (UN, 2020, p.25)
			보행자 도로로의 전환	converting streets into pedestrian zones (UN, 2020, p.25)
		토론토	보행자 도로로의 전환 및 확장	- converting streets into pedestrian zones (UN, 2020, p.25) - created bigger sidewalks in a few places by blocking off sections of the curb lane so those on foot can spread out safely onto the road (OECD, 2020, p.47)
2)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성 (Sustainable urban mobility)	멕시코시티	자전거도로 확장 및 신설	- cities are creating new bike lanes or widening existing ones (UN, 2020, p.25) - introducing short-term street closures and temporary bike lanes (UN, 2020, p.25)	
		대중교통의 위생·안전 조치 실행	implementing hygiene and safety measures in public transport (UN, 2020, p.25)	
3. 스마트전략 (Smart recovery)	1) 경제와 비즈니스 (Economic & Business)	도쿄	디지털 서비스로의 변환	digital transformation, with the promotion of online learning, telemedicine, telecommuting, and the digitalisation of public services (OECD, 2020, p.34)
	2) 교육 (Education)	도쿄	공립학교의 온라인 학습	smart school project aims to enable all public school children and students in Tokyo to study online (OECD, 2020, p.35)
		뉴욕	인터넷 접속을 위한 태블릿 대여	loaned out 300,000 tablets with internet access to students in need in order to

전략	세부 전략	도시	정책 내용	
			요약	원문
				support distance learning (OECD, 2020, p.65)
	3)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	런던	긴급 의료원 개설 및 기존 시설 활용	constructed emergency hospitals and converted existing facilities to boost capacity during the outbreak (UN, 2020, p13)
		뉴욕	수도 폐쇄 중단	mandated a halt to water shutoffs (OECD, 2020, p.51)
			공공서비스 이용 지원	securing access to public services (OECD, 2020, p.55)
			휴대폰 알람 서비스	phone alerts (OECD, 2020, p.64)
			비대면 결제 서비스	encouraged the use of contactless payments through smart phones to reduce contacts and exposure risk for the public and the workforce (OECD, 2020, p.66)
4. 관광·문화·창조산업의 회복 (Recovery in the tourism,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1) 문화·창조 산업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런던	긴급 자금 지원	EUR 2.6 million emergency fund to support at risk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including grassroots music venues, artist workplaces and independent cinemas (OECD, 2020, p.36)
		멕시코시티	온라인을 통한 지원	Launching a dedicated and innovative website, supporting artists and cultural workers (UN, 2020, p.20)
5. 도시회복 전략 (Strategies for urban resilience)	1) 도시의 회복 전략 (City's resilience strategy)	파리	시민 연대 활동 동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시민 의견 수집 등)	the mobilisation of a citizen solidarity network (aris volunteers) to check up on elderly people or the use of communications to raise awareness about prevention measures (OECD, 2020, p.38)
			포용적 도시 (Inclusive cities)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고용	customised employment (OECD, 2020, p.38)		
	주택 수량, 품질, 비용 조정	adjust housing quantity, quality and affordability (OECD, 2020, p.38)		
			소프트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높임	improve accessibility to soft mobility (OECD, 2020, p.38)

전략	세부 전략	도시	정책 내용	
			요약	원문
			교육 제공의 형평성과 온라인 교육의 활용 극대화	promote equitable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leverage the full potential of online education (OECD, 2020, p.38)
		녹색 도시 (Green cities)	이동수단 규제와 개선 (개인차 사용 자제, 특별 규제, 복합 운송 개선)	reducing the use of private cars, ad hoc regulation(특별규제), improve multi-modal transport (i.e. proximity & walkability; combining supply-side and demand-side transport management policies) – (OECD, 2020, p.39)
			친환경 도로 개설과 재생에너지 생산 및 조달	designing and constructing green buildings and streets, and producing and procuring renewable energy (OECD, 2020, p.39)
			순환경제 촉진, 폐기물 발생 방지, 폐기물 재사용 및 자원화	promoting circular economy, prevent waste generation, reuse and transform waste into resources (OECD, 2020, p.39)
			녹색 투자 프로젝트와 사업 실행 지원 (조건부 보조금, 특별 대출, 재정 인센티브)	designing conditional subsidies, preferential loans and fiscal incentives for green investment projects and business practices (OECD, 2020, p.39)
		스마트 도시 (Smart cities)	대중교통 내 새로운 기술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Ensure that new technology in public transport (i.e. app-based ride services) is inclusive and sustainable including to those with reduced mobility (OECD, 2020, p.39)
			공유 경제와 킥 경제 (gig economy)에 대한 적절한 규제 사용	adopt appropriate regulation for the sharing and gig economy (OECD, 2020, p.39)
			디지털 활용	Leverage digitalisation (i.e. real-time data, electronic congestion tolls, smart parking systems, IoT sensors, smart contracts) (OECD, 2020, p.39)
		올바른 통치 (Good governance)	혁신적인 협업 도구와 계약을 통한 민첩하고 유연한 도시 모델 촉구	Promote an agile and flexible model of city governance through innovative collaborative tools, partnerships or contracts (OECD, 2020, p.39)
			정부차원에서의 책임과 자원 조정	Co-ordinate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2020, p.39)

참고문헌

-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2021,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London impact*.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website, 2022, *Policy paper: UK Digital Strategy*.
- Economic Recovery Task Force Report, 2020,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 Findexable, 2022, *The Global Fintech Index*.
- Georgina Maratheftis, 2021, *Emerging Technology Charter for London launched*.
- Gina Clarke, 2021, *How London Became a Global Center for Fintech and What U.S. Tech Hubs Can Learn From It*.
- GLA, 2020a, *DD2448 Mayor's Digital Talent Programme budget reallocation*.
- GLA, 2020b, *The Evidence Base for London's Local Industrial Strategy - Final report*
- GLA, 2021, *An Emerging Technology Charter for London*
- GLA website, *Supporting Financial and Business Services*
- Government of Canada, 2022, *Fintech Market in Singapore*.
- Industriestadt Berlin, 2018, *Masterplan Industriestadt Berlin 2018-2021*
-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2006, *Innovation, Integration, Internationalisation - Report by the iN2015 Steering Committee*.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Singapore: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 Laura Davison, 2017, *UK Financial Services - Clustering and Concentration of Firms and Jobs*.
- 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2021, *LifeSci NYC: Leading the way in Life Sciences Innovation*.
- 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2022, *Life Sciences in the NYC Metro*

London & Partners website, London Tech Week.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19, *Singapore Retains Position as One of the Largest FX Centres Globally*.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0, *Project Ubin Phase 5 Enabling Broad Ecosystem Opportunitie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2, *Annual Report – FY 2021/2022*.

OECD, 2020, *Tackling Coronavirus(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Cities Policy Responses*.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2015, *At Risk: New York's Future as the World's Financial Capital(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 GLG)*.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201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SkillsFuture Singapore, 2022, *About SkillsFuture*.

Smart Nation Singapore, 2022, *Milestones of Singapore's Smart Nation Story*.

Statista, 2022,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Singapore in 2022*.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2020, *Economic Recovery Task Force Report*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15, *OneNYC: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New York City*.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19, *OneNYC 2050 Full Report, New York City*.

The City of New York Mayor, 2022, *Rebuild, Renew, Reinvent: A Blueprint for New York City's Economic Recovery, New York City*.

The Straits Times, 2022, "Gan Kim Yong unveils Singapore Economy 2030 plan aimed at boosting exports to \$1 trillion".

UN, 2020, *Policy Brief: COVID-19 in an Urban World*.

“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纲要”, 2021.01.30.

[https://kosis.kr\(국가통계포털, KOSIS\)](https://kosis.kr(국가통계포털, KOSIS))

[https://www.stat.go.jp\(도쿄도청 통계, Statistics of Tokyo\)](https://www.stat.go.jp(도쿄도청 통계, Statistics of Tokyo))

[https://www.toukei.metro.tokyo.lg.jp\(도쿄도\)](https://www.toukei.metro.tokyo.lg.jp(도쿄도))

[https://mori-m-foundation.or.jp/english/ius2/gpci2/index.shtml\(모리재단 Global Power](https://mori-m-foundation.or.jp/english/ius2/gpci2/index.shtml(모리재단 Global Power)

City Index)

<https://www.dol.gov>(미국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

<https://www.statistik-berlin-brandenburg.de>(베를린 통계청, statistik-berlin-brandenburg)

<https://www.singstat.gov.sg>(싱가포르 통계청,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https://www.mas.gov.sg>(싱가포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s://www.mom.gov.sg>(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https://www.gov.uk>

<https://www.ons.gov.uk>(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london.gov.uk>

<http://www.stats.gov.cn>(중국 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fred.stlouisfed.org>(Federal Reserve Bank)

<https://www.imf.org/en/Home>(IMF)

<https://www.oecd.org>(OECD)

<https://www.statista.com>(Statista)

<https://de.statista.com>

<https://ulez.co.uk/ulez-map>(The ULEZ Map)

<https://www.un.org>(UN)

<https://londontechweek.com>(London Tech Week website)

<https://laboureconomics.wordpress.com>

<https://generalplan.sfplanning.org/>

<https://www.london.gov.uk>

<http://nychanow.nyc/nycha-residents-thriving-in-it-careers-after-tech51-training/>

<https://edc.nyc/industry/emerging-tech>

<https://edc.nyc/industry/life-sciences>

<https://edc.nyc/program/bio-health-tech-entrepreneurship-lab-nyc>

<https://edc.nyc/program/digital-health-marketplace>

<https://edc.nyc/program/ida-life-sciences-program>

<https://edc.nyc/program/nyc-early-stage-life-sciences-funding-initiative>
<https://esd.ny.gov/industries/financial-services-and-insurance>
<https://fintechnews.sg/57639/fintech/singapore-fintech-report-2022/>
<https://forkast.news/headlines/new-york-fed-bis-launch-fintech-hub/>
https://innolabslic.com/wp-content/themes/innolabs/_content/ebrochure/ksp_innolabs_ebrochure.pdf
<https://www.london.gov.uk/publications/roadmap-safe-and-full-reopening-londons-economy#3-long-term-into-recovery>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adiq-kickstarts-londons-covid-recovery>
<https://nypost.com/2021/06/15/goldman-sachs-reportedly-plans-to-move-more-than-100-bankers-to-florida/>
<https://onenyc.cityofnewyork.us/reports-resources>
<https://rew-online.com/innolabs-life-science-building-welcomes-first-tenants/>
<https://startuptimes.jp/2018/01/24/76942/>
<https://statistics.labor.ny.gov/ins.asp>
<https://www.biobat.nyc/>
<https://cure.345pas.com/gallery>
<https://www.biolabs.io/nyulangone>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006091
https://www.dfs.ny.gov/virtual_currency_businesses#:~:text=The%20BitLicense%20allows%20a%20company,required%20under%20New%20York%20law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ore-15-million-awards-through-new-york-state-biodefense>
<https://www.newyorkfed.org/newsevents/news/aboutthefed/2021/20211129>
<https://www.nytimes.com/2020/10/13/nyregion/big-tech-nyc-office-space.html>
<https://www.nytimes.com/2022/01/20/nyregion/eric-adams-bitcoin-cryptocurrency.html>
<https://www.queenslibrary.org/programs-activities/technology-training/queensbridge-tech-lab>
<https://www.scs.org.sg/articles/smart-nation-singapore>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choki-plan>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versionup2022/index.html#page=1>

<https://www.smartnation.gov.sg/about-smart-nation/our-journey/milestones>

<https://www.startupbootcamp.org/accelerator/fintech-new-york/>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24025/number-of-financial-institutions-in-singapore-by-type/>

<https://www.tax.ny.gov/pit/credits/life-sciences-research-and-development-tax-credit.htm>

<https://www.technyc.org/techyear>

<https://www.toukei.metro.tokyo.lg.jp>

<https://www.wsj.com/articles/midtown-manhattan-with-fewer-office-workers-imagining-the-unthinkable-11647941402>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14-21/recovery-all-us-new-york-city-invests-1-billion-life-sciences>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restaurants.shtml#permanen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major-450-million-bring-back-tourism-bring-back-jobs-inclusive>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11/11.08.21.rel_BACK_Korean.pdf

<https://www.sfhhsa.org/services/health-food/groceries-and-meals/give2sf-COVID-19-response-and-recovery-fund>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Economic Policy Direction of Major Cities to Become a Global City

Heeseok Park·Sujin Kim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in the establishment of Seoul's status as a global city and to enhance continuous growth and competitiveness. As a global city, Seoul is required to present its urban economic policy direction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o become the fifth place in urban competitiveness. This study monitors the economic policies in major citie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after COVID-19 pandemic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in Seoul.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1) Introduction, 2) Analysis and Diagnosi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by Major Overseas Cities, 3) Post/With COVID-19 Economic Policy Survey in Major Overseas Cities, 4)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Policies in Three Major Overseas Cities, and 5) Conclusion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chapter 2, we analyze and diagnose the trends in macroeconomic indicators by major cities in the world.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issues are analyzed with major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inflation, unemployment rate, and exchange rate for each city. The eight major cities selected are New

York, Tokyo, London, Paris, Shanghai, San Francisco, Berlin, and Singapore.

Chapter 3 examines the economic policies of major overseas cities during the Post/With Corona era. COVID-19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cities around the world since the pandemic declaration.

COVID-19 shocked the global economy in the short term, and the occurrence of international infectious diseases causes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collapse of the labor market. Accordingly, large cit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five long-term urban strategies after preparing individual crisis management and short-term strategies. The five strategies are 1) Inclusive Recovery, 2) Smart Recovery, 3) Green Recovery 4) Recovery in the Tourism,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and 5) Strategies for Urban Resilience. The five urban strategies are focused on the recovery of cities, environments, tourism, culture, and industry.

Chapter 4 analyzes industrial policies for three key cities, New York, London, and Singapore, which can be benchmarked by Seoul Cit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inancial industries. These three cities are promoting policies and projects specialized in financial industries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licy-focused industries are the financial industry, fintech, bio-industry, tech industry, eco-friendly industry, and digital industry.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Analysis and Diagnosi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in Major Overseas Cities

- 1_Overview of Macroeconomic Indicators in Major Cities
- 2_Diagnosis of Changes in Economic Flows in Major Cities
- 3_Summary

03 Analysis of Economic Policies in the Age of Post/With COVID-19 in Major Overseas Cities

- 1_Overview and Contents of Analysis
- 2_Economic strategies since COVID-19 the pandemic declaration.
- 3_Long-term Economic Policies
- 4_Summary

04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Policies in Three Major Cities

- 1_New York
- 2_London
- 3_Singapore
- 4_Summary

05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1_Conclusions
 - 2_Implications
-

글로벌 도시로 도약 위한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지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조사
서울연 2022-BR-17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1월 25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728-8 9332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